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61 1982년3월2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March 2, 1982

MAR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illegible] Street
TORONTO, CANADA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공범 제롤 보석 허가

$30만 받아 분배 협의

「16명의 특별인물」과 접촉금지

전대통령암살음모단의마이클·제롤(33)은 1일 하오4시현재 보석금 7만5천달러를 지불못해 석방되지 못했다.

1일 상오 10시10분 온타리오 최고법원 22호법정에서 열린 적부심에서 로버트·맥도날드검사와 제롤의 변호사 알란·골드씨는 보석조건에 합의했다.

맥도날드검사는 솟장에서 81년6월 제롤이 전두환대통령 암살거사자금으로 30만달러를 받아 야노버와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롤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온타리오밖을 벗어나지 말 것과 사건에 관계된 16명의 「특별인물」과 접촉하지 말것을 명령받았다. 이 16명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홍희씨가 16명 특별인물속에 포함됐다는 설이있다.

온타리오최고법원 22호법정에는 한국의 각 방송, 신문 특파원들과 몇몇관계자들만 나왔다. 적부심은 제롤의 보석금액과 조건만 결정하고 5분만에 끝났다.

공판이 끝난 후 합동수사반의 샌델리형사와 오크형사는 새로 부각된 「문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문은 야노버및 오늘 임시석방될 제롤과친분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홍희씨의 저택 싯가는 근 46만달러에 달하는 대 저택이다. 집앞에 이르는 페이브먼트만도 근 20여미터.

최홍희의 집 $46만 캐쉬요구

최홍희의 집은 작년7 월 46만 달러에 시장에 나왔으나(MLS)몇개월이 지나도 안팔렸다

대지는 약 1천평 4 분의 3에이커 넓이의 이 집은 4 베드룸등 방10개 화장실 3 개, 더블 거라지의 쇼지안·스타일 2층벽돌집이다. 주위는 그와비슷한 정원넓고 큰 집들만 몰려있는 부촌.

QEW 하이웨이 남쪽미시사가·로드 1470번지에있는이 집은 모기지가 한푼도 없어 최씨는 46만달러 전액 현찰을 요구했었다. 차고옆에는 입구가 따로난 별채가 딸려있어 이 별채에서 최중화와 부인이 1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센트럴·에어콘 에어·크리너등 각종 부대시설이있다. 무엇보다 대문부터 현관까지의 순환 드라이브·웨이, 분수대등이 인상적이다.

이 집의 대지 모양은 전면 100, 후면 200, 남쪽421 북쪽경계 369피트의 비정상적 모양이다.

최씨는 이집을 살 때 모기지가 있었다.

"최씨는 미국갔다" 아직도 행방묘연

"최홍희씨는 지난 27 일 부부동반으로 미국 모처에 갔다"고 1일 최씨 집에서 전화를 받은 「모나」라는교포여인이 말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모나」씨는 최씨부부가 금주중 토론토로 돌아온다 고 말했다.

최씨가 왜, 어디에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일요일인28일 낮 최씨집을 찾은 본사취재팀은 현관에서 초인종을 여러번 눌렀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있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최씨또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채 되돌아 왔다.

현관에는 토요일자 「토론토·스타」지가 놓여 있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본사, 수사반장과 단독인터뷰〉

한국정부 압력설 부인

문지식씨 관련혐의 시인

〔조미래 기자〕

합동특별강력수사반의 짐·맥킬비나 반장은 1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캐나다 수사당국은 언제나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한 공정한 수사를 하므로 한국정부 혹은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의 영향력하에서 이번 사건을 발표했다는 추측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킬비나반장은 한국 수사당국에 밀수혐의및 반공법위반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토론토교포 문지식(전직 냉동기술자)씨가 이 사건에관련됐음을 시인하고 수사반을 한국에 파견할 뜻임을비쳤다. 연방경찰(R CMP), 온타리오주 경찰(OPP), 메트로토론토경찰의 조직범죄담당 정예요원 7명씩으로 구성된 합동특별강력반(United Special Enforcement Unit)반장이라는 직책상 신문, 방송등에 사진게재는 물론 기자와의 인터뷰도 거의 허용치 않는다는「맥」반장은새벽부터 들이닥친 본기자의 공세에 항복했다면서 10분만 허락하겠다던 인터뷰를 30분 동안으로 연장시켜주었다. 다음은 「맥」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 토 토론토 한국계신문은 한국정부가 사건을… [illegible] 작, 수사당국에 영향력을 미쳐친북계세력내지 북한당국을 곤란케하려고한 함정이었다는 설이 있다고보도했다.

답 : (크게 웃으며) 그건 캐나다경찰이 어떤 경찰인지,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서 나온 얘기이다. 특히 우리 합동특별수사반은 국제적 조직망을 가진 권위있는 수사대로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누구를 편들지도 않는 「사실」을 근거로 한 수사를 전개한다는 모토로 활동한다.

한국정부가 어떤 식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할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에 응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 수사반은 최홍희씨의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가?

답 : 최홍희에 대해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

문 : 최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27.28일 그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가 체포됐다는 얘기도 떠도는데?

답 : 체포되기까지는 누구나 자유인이고 근거없이는 체포할 수 없으므로 그가 어디있는 지는 모른다. 그는 토론토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

문 : 그렇다면 증거가 없는한 최씨가 캐나다 국외로 나가는것도 막을수 없지않는가?

답 : 노·코멘트

문 : 수사가 6개월전 시작됐고 범인들의 거사모의는 81년1월부터 시작됐다면 왜 1년여지난 금년 1월초 최중화의 이북행을 막지 못했는가?

답 : 캐나다는 알다시피 자유로운 국가이다. 혐의는 두고 있었지만 당시로는 체포할만한 근거가확보되지 않았다.

문 : 언제, 어디서 어떤식으로 거사하려 했는지, 혹은 전대통령이외에 다른요인 살해음모는 없었는지?

답 : 범인들이 입건된 것은 전대통령 살해음모때문이지 않는가? 그 이외의것에 대해서는 수사상 밝힐수없다.

문 : 한국에 수사요원은 파견했는가?

답 : 필요하게되면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

문 : 남북한 양쪽에?

답 : 북한에는 파견 안한다. 북한과는 범인인도협정이 없으므로.

문 : 범인들의 거사자금이 백만불이라는 설이 있는데?

답 : 그렇지 않다. 금액은 아직 밝힐수 없다.

문 : 백만불 이상인가?

답 : 그렇지 않다.

문 : 그럼 백만불 이하란 뜻인가?

답 : 노·코멘트.

문 : 야노버와 제롤이 사기치려는 대상이 누구인가 최중화 뿐인가, 배후세력인가, 북한당국인가?

답 : 원래 발표했던 대로 최중화와 알려지지않은 북한인들이다. (James Choi and Unknown North Koreans)

문 : 「문」은현재 수사반이 확보하고 있는가?

답 : 그는 한국에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토론토로 왔다는 얘기는 모른다.

문 :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련됐다는 설은 사실인가?

답 : 말할 수 없다.

문 : 그가 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면 귀하가 「문」을 알리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나는 「문」이라고 성만 밝혔지 그의 이름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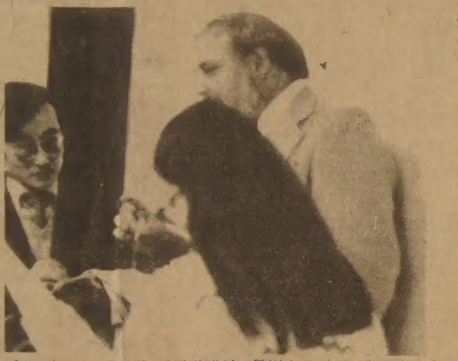
답 : (웃으면서) 「문」은 누구나 잘 아는 인물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문지식은 토론토 교민사회에서도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므로 경찰이 아무 연관없이 그를 아는 척 한데가 없다)

문 : 「문」이외에 몇명의 교민들이 더 이 사건에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지?

답 : 지금으로는 밝힐 수 없다.

문 : 최홍희의 사위2명중 하나는 그리스계이고 하나는 아일랜드계라고 알려졌는데, 그들은 혹은 그 외 최홍희의 가족들이 이사건때문에 조사받고 있지는않은가?

답 : 최중화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온타리오 대법원 법정밖에서 특별수사반의 샌델리형사.

문 : "알려지지 않은 북한인들"이 캐나다거주자들이 아니란 점은 샌델리 형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렇다면 캐나다 방문자들 혹은 제3국의 북한인들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혹시 그들의 신분을 파악했는지?

답 : 그들의 정체, 이름, 얼굴등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illegible] 단계가 아닙니다.

문 : 이 사건은 지금 한국에서는 연일 머리기사로 다루어지고 있고 취재경쟁도 치열하다. 귀 수사반의 역할이 크게 보도되고, 한국의 특파원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아는가?

답 : 이제 보석적부심 이 열린 단계이므로 특파원들이 오기에는 좀 이르다.

문지식씨도 관련

밀수, 반공법위반으로 복역중

토론토교포 문지식씨가 대통령 암살모의사건에 관련된 새 인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반의 매킬베나반장은 1일상오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문의 신원등을 알고 있다"고 시인했고 25일 법정에서 만난 오크형사나 샌델리 형사도 "문은 이미 체포된 범인야노버, 제롤과 모종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해 특별수사반이 한국으로 갔을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토론토영사관측은 "캐나다시민권자인 문은 한국에서 약 3개월전 단순한 밀수범으로 체포된것으로 안다"면서 영사관에서는 캐나다 경찰발표외에는 아무사실도 모른다 고 말했다.

문씨는 토론토에서 약 3년전까지 냉동기술자로 일했으나 그후 유태인계통의 사람들과 같이 파산업체인수회사, 보석밀수입등에관련, 야노버등의 기록과 일치되는 점이 있다. 문씨는 보석장사 광고를 본지에냈었다.

서울에서 전해지는 소식통에 의하면 문은 밀수로 잡혔으나 반공법으로 7년형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문씨는 46년생으로 1남 1녀가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범인인도협정은 없으나 캐나다경찰과 한국경찰은 수사에협조한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imited
각종주식·유가증권·선물(금·은)등
투 자 상 담
●361-3428 강 상 욱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개업 특별 할인
(3월 2일 개업)
미용·화장 전문센타
이 할인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게 10% 할인합니다. 82년 5월말까지 유효.
◎ 매니-큐 화장법
◎ 얼굴 화장법
◎ 얼굴 맛사지법
◎ 피부보호 화장법
◎ HAIR-REMOVAL 보호방법
6093 Yonge St. (영×휜치)
o. Just North of Finch
o. Yonge 센타 플라자내
☎ : 223-7884~5 Mrs. 리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AMIK CRAFT SHOP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종합보험

김 흥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올림픽후원회 결성

7인준비위원에 8명 추가

재캐나다 교민모국올림픽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25일 하오7시30~9시30분,토론토한인회관에서 올림픽 후원회 발기총회를열었다.

토론토 한인사회의 각단체장,유지등 5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이모임은 장순채씨(한인상가번영회장)사회로 시작,이병권 대한체육회지부장의 취지문 낭독에이어 임시의장으로 박인순 한인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영신,박광철씨등의 질문에따라 사회를맡은 박회장의 경과보고및 준비위원장순채,이병권,이창복씨등의 보충설명에서 (1)물질적 모금도 해야하나 정신적후원,책자보급등 한국을 이땅에 선전하는 일이 앞서며,(2)86년 아시아경기대회후원은 안하고 88년 올림픽만 뒤민다는 점등을 밝혔다.

운영위원 선출문제는 차선겸씨(실협인협회회장)의 현재 7명의 준비위원에 8명을 더뽑아,그들에게 위원장선출권을 주자는 제의에 최충식씨가 8명의 새위원 선출권도 7인준비위에 주자는 보충동의를 내놓아 절대다수 거수 찬성으로이안이 통과되었다.

황대연·박인순·장순채·이병권·차선겸·조영호·이창복씨의 7인준비위가 별실에다가 8명의 추가운영위원 인선을 하는동안 약 10분간 회의는 휴회로 들어가 참석자들은 담소를나누며 다과를 들었다.

이어 박인순 임시의장은 함의현·조한철·원영신·원장호·박주삼·최동주·조기연·김만구씨의 8명을 운영위원으로 호명,이들은 준비위 7명과함께 재캐나다교민 올림픽후원회 운영위원회를 이루었다.

이 운영위는 위원장을뽑고, 각부서의배치, 후원회내규제정,사업계획 수립등 제반업무를 구상,실천에옮긴다.

이날 이병권 체육회장이 발표한 후원회 취지문 요지는 아래와같다.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인 88년도 하계올림픽과 아시아인의 영원한 전진을 다짐하는 86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유치 성공은작년도의 획기적 쾌사였다. 한국은 이제 세계올림픽사상 16번째로 아시아지역으로서는 2번째로 올림픽 개최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를 가일층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를갖게되었다. 이두 국제대회가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와우리국민의 참된 모습을 정확히 세계만방에 전달할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협력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바란다.

유학생 등록금 인상

온타리오,유학생수감소

내년 9월까지 온타리오주 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이 2배이상 된다. 결과로 이번 9월 신학기에 외국인유학생의 등록금은 캐네디언 학생들의 3배가량 된다.

문교부장관 베테·스티픈슨은 온타리오 각 대학에 보낸 메모에서 83년 9월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기 교육비의 2/3를 내야된다고 말했다. 1/3은 주정부가 보조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그들 교육비의 30% 가량을 등록금으로 내고 있다.

스티픈슨 박사는 지난주 이같은 인상은 금년 9월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50%까지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은자기가 택하는 코스에 따라 $2,700~$4,400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현재 등록금은 $1,612~$1,950이다.

스티픈슨 박사는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조처는 모든 사람에게 보다 공정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 전국 대학에는 27,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하고 있으며 그중 47%가 온타리오주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

캐나다의 10개주중 온타리오주를 비롯, 6개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캐네디언 학생 사이에 차별등록금제를 실시,유학생들에게 높은 등록금을 부과 하고 있다. 브리티쉬·콜럼비아, 사스캐치완, 마니토바와 뉴 펀들랜드는 차별등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같은 온타리오의 유학생 등록금 인상은 유학생수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최근 완성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조사에 온타리오주 대학을 대표했던 아더·본스는 인터뷰에서,"온타리오정부는 유학생 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으로 유학생수를 줄일 것같지 않으며, 이런 방법보다 오히려 쿼타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스는 해밀턴 소재 맥매스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는 온타리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성분을 변경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온타리오는 아프리카에서는 점점 적은 유학생들을 데려오고, 부유한 집안이나 나라의 유학생들을 점점 많이 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칠레軍政 비판 勞組員 칼에찔린 시체로 發見

〈산티아고, 칠레-UPI〉 지난주 칠레 군사정부를 비판했던 공무원노동조합장 투가델히메네즈(60)가 칼로 찔려 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1년전 재무성에서 감원된 히메네즈는 정부의 예산축소정책에 따라 해고된후 택시운전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본사편집국에서 큐브를 시범해 보이는 김수 군. 김군은 43초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루빅스·큐브대회서 1등

김수남군, 학교성적도 1등

루빅스·큐브 캐나다챔피언쉽 토론토지역 대회에서 김남수군이 400여경쟁자를 물리치고 39초라는 기록으로 1등을 차지,상금 250달러를 받았다.

김군은 오는3월20일 온타리오 사이언스·센터에서 있을 캐나다전국 결승에진출한다.

루빅스·큐브(Rubics Cube)란 75년 항가리인이 고안해 낸 것으로 79년 부터 북미에 퍼지기 시작, 청소년들의 큰 인기를 얻고있다. 이 6면큐브는 머리를써야하는점이 일반장난감과 다르다.

작년6월부터 큐브를 만진 김군은 노스·욕의 엘리아·쥬니어·하이스쿨 9년재학중으로 대회에는 동생인 5년 용남군과 함께 기대없이 출전했었다.

심슨백화점과 아이디얼·지니·월슬리 장난감회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연령에 제한없이 3차예선 을 거친 13명이 결선에서 겨루었다.1차 예선에서는 아무렇게나 조작해논 루빅스·큐브를 맞추어놓는 것이고 2차예선에서는 1.5분이내에,3차예선에서 1분이내에 각각 풀수 있어야하는 것.

결선에서 남수군과 1살위인 제프·브라운군은 39초로 동점이어서 2명이 다시 2차전끝에 제프는 45초 수남군이 43초를 기록, 우승한 것이다.

김군은 평소에 실력이38~39초이며 28초이내에 맞춘것이 최고기록,세계기록은 영국인이 세운 23초이다.

6년전 이민,더퍼린과 핀치에서 스테레오·샵을 하고있는 김월근·김창금씨의 장남인 수남군은 학교에서 수학은 물론,전과목에서계속1등을 차지했다. 뭐든지 금방 터득해내는 성격으로 루빅스·큐브는 혼자서 해봤을뿐 책보고 연구하지는 않았다고.

노스·욕 수학경시대회에서 전체2등,학교내 경시대회에서 1등한것을 비롯,학교에서 모범인것은 물론,교회도(영락교회)매주일빠짐없이 참석한다.

최고점 장녹준·박순상

대학생회 주최 수학경시

지난20일 토론토지구한인대학생회(회장 천명호)가 주최한 제5회 수학경시대회에서 시니어부(12, 13학년)의 장녹준(18세,East York C.I.12)군, 쥬니어부(9~11학년)는 박순상(14세,Woburn C.I.10)군이 각각 51점,70점으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시니어부의 2등은 46점의 김태준(19세 Emery C.I.12)군,3등은 43점의 김재홍(17세,Albert Campbell C.I.12)군 쥬니어부 2등은 38점의 김근현(17세,Chinguacousy High School 11)군,3등은 35점의 김재승(14세,Albert Campell C.I.9)군이다.김재홍,김재승군은 형제로 각각시니어,쥬니어부에서 3등을 차지해 이채를 띠었다.

시상식은 3월12일하오 7시 Library Science 빌딩(130 St.George St. 205호실에서 갖는다.

시니어부 입상자는 경시대회후원기관인 한인장학재단이 수여하는 부상(현금)과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 제공한 상패를 받는다.부상은 1,2,3,등이각각 $70, $50, $30와 대학생회가 수여하는 상패를받는다.

이번경시대회 운영을 주관한 김중수(토론토상대2년)군은"작년보다 약간평균점수가 높았으나 우리가 예상했던 평균에는 못미쳤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작년보다 문제를 쉽게출제,30~40점을 평균으로예상했었으나 시니어부 평균은 26.34점,쥬니어부는 17.03점으로 저조했다.

이번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시니어부 22명,쥬니어부 37명이었다.

평균점수가 낮은데도 불구,쥬니어부 1등 박순상군은 70점을획득,수재적인수학재질을 발휘했다.

시상식날은 한국영화「시집가는날」도 상영한다고하며,대학생회회원,수상자및 동반부모는 무료이고 일반참석자는 영화관람료 $1 이다.

◇3월14일 토론토의 세인트·로렌스·홀에서 독주회를가질 피아니스트 문익주씨.

◇맥크린·헌터에 넘어가는것을 심각히 반대해온「선」지 주필 워딩톤은 헌터사의 잡지 맥클린의 주필 피터·뉴맨을「선샤인·보이」의 새로운 모델감이라 올리고 있다.

「토론토·선」지 구입

미디아재벌「매크린·헌터」사

"날로 커가는 작은 신문"(The little paper that grew.)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애용하는 토론토·선지가 시사주간지 매크린(Maclean)을 비롯한 많은 정기간행물과 전국각지에 방송망을 가진「미디아」재벌「매크린·헌터」사(회장 단·캠벌)에 팔렸다. 매매가격은 5,400만 달러.

일간 토론토·선지가 소유한 에드먼톤·선, 캘가리·선, 캐나다UPI통신사(UPC)등 3개 언론기관의 경영권도 헌터사로 넘어갔다.

토론토·선지 발행인 더들라스·크레이튼은 25일하오 종업원들에게 "회사가 팔렸다는것은 경영주인 나에게는 슬픈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밤「선」지 매각사실을 본한국일보에 처음전한 칼·밀러기자는 "피터·워딩톤주필을 비롯한 편집진들은 이 매각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편집진들은 매크린·헌터가「선」지마저 소유하면 언론산업의 독점화를 가속화시켜「작은거인」이라는「선」지의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4년전에 창간한 에드먼턴·선지와 2년전 시작한 캘가리·선지는 80~81 회계년도에 약 250만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나 모회사인「토론토·선」지의 이익이커 전체적으로는 43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선」지는「토론토·텔레그람」지가 토론토·스타와「그로브·앤드·메일」에 눌려 폐간한지 2일만인 1971년11월1일 창간호 7만5천부를 발행, 매진됐다.

$375,000의 자본금과62명을 갖고 시작한「선」은 이제 1,200명의 종업원을 가진 $5,400만 달러가치의 대 신문으로 자라났다.

「선」지가 탄생했을때 전문가들은 성공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선지는 계속 성장, 창간 4년만인 75년도에 900만달러짜리 333 킹 스트릿의 현 사옥으로 확장이전했다.

팔막팔막한 기사, 오락, 스포츠, 연예등을 위주로한「선」지는「선·샤인·걸」과「선·샤인·보이」및 매일 10여페이지에 달하는 전축광고로 유명하다.

현재 주중판은 약22만부,일요판 41만5천부를 발행,캐나다에서는 토론토스타,그로브·앤드·메일, 뱅쿠버선에 이어 4번째의 대신문이다.

일요판만 가정배달하고 주중판은 거리에서만 판매하는「선」지의 독자층은토론토인근 통근자들,노동자,젊은 층으로 반이상의 독자가 18~34세이다.이들중 대부분은「선」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신문을 보지 않을 계층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위니펙의 피아니스트 문익주씨

3월14일 토론토 데뷰

위니펙 교민인 피아니스트 문익주(26)씨가 오는 3월14일(일)토론토의 세인트·로렌스·홀(St·Lawrence Hall)에서 독주회를갖는다.

토론토 교민에게는 잘알려지지않은 문씨는 줄리아드,커티스등 명문음악학교에 수학했고 수상및 연주경력이 화려하다.

지난2월22일 오타와의내셔널·아츠센터에서 가진연주에서는 모짤트의 소나타 F Major, K.332, 프랑소아·모럴의「두개의 뷔드」, 브람스의「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오타와의 시티즌지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세인트·로렌스·홀연주회의 연주곡목은 바하의 프리루드와 휴그,베토벤의소나타 17번 Op.31, No.2와 함께 브람스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다.

이 변주곡은 지금까지작곡된 피아노곡중 가장힘든것으로 알려졌다.

55년 전주에서 출생, 6세때부터 정진우,유명교수에게 사사받기 시작했고, 69년 위니펙으로 이주한뒤로는 73년 음악천재교육학교인 미국 필라델피아의커티스음악학교에 갈 때까지 레오나드·이삭(Leonard Isaacs)교수에게 사사 했다,75년부터 80년에는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Gyorgy Sebok 교수하에서 수업하면서 음악학사및 석사학위를 받고 80년 가을부터는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Sascha Gorodnitski 교수밑에서 공부하고 있다.

마니토바대학 사회학 교수인 문승규 교수의 장남으로 현재 미혼인 문씨는 지난1월15일에는 위니펙·심포니·오케스트라와 라벨의 G장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을 협연,위니펙·프리·프레스 등에서 격찬을 받았다

문씨의 수상경력은 76년 캐네디언·뮤직·콤프티션(CMC) 1등, 77년 제네바 국제음악경연대회 동상,80년 몬트리얼 국제 피아노 경연대회 입상, 81년 줄리아드 피아노 콩쿨인 지나·바카우어 경연에서 1등한것을 비롯, 4년간 캐나다·카운슬의 예술인 장학회, 2년간 마니토바주 아츠·카운슬의 장학금을 탔었다.

퀘벡,몬트리얼,미네소타,내셔널·아츠·센타(오타와) 위니펙·심포니, 캘거리등 각지 관현악단과의 협연했고, 필라델피아,뉴욕,퀘벡,몬트리얼, 위니펙, 밴프,제네바, 미니아폴리스, 로체스터, 오타와 등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수상>

눈오는 날에 한국인을 생각한다 ④

김 삼 우(선련사 주지)

금년 정초 오타와 국립박물관에서 전화가 왔다. 한국불교와 관련있는 풍속을 녹화촬영 도큐멘타리로 만들기 위해 취재팀을 내려보낸다는 것이었다. 2년전에도 박물관에서 내려와 불교관계 문물을 수집해간 적이 있고, 그 후도 수차례 전화가 와 촬영팀을 내려보낼테니 「부처님 오신 날」아니면 음력설날 어느쪽이 좋은가고 문의를 해온적도 있었고, 예산책정이 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하여 그런줄만 알고있었다.

그런데 막상 오기 5일전에 전화를 받고보니 준비하는데 당황하지 않을수없었다. 그래서 나와함께 살고있는 캐나다인 신도들과 상의하여 일부는 불교가캐나다에 어떻게 전파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우리의 수행생활을 통하여 있는그대로 보여주기로 하고, 이부는 불교와 관련있는 한국민속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하고, 춤추시는분, 창하시는 분등에게 연락을 취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다. 날짜가 촉박하여 이미 선약이 있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된다는것이었다. 어떤분은 그런 큰 일을 선련사 혼자서 어 떻게 할수있는가, 한인회나영사관에 어째 연락하지 않는가고 선의로 힐란하는분도 계셨다. 그러나 박물관팀이 어째 한인회와 영사관을 모르겠는가. 그분들, 한국문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원한다면 어째 얻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박물관이 원하는것은 그런것이 아니었다. 또 어떤분은「국위선양」에 관계되는 일인데, 어째 신문사에 연락하지 않는가고물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주변머리가 없어 광고와 선전에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사람이다.

나는 할수없이 우리절에 나오는 신도들을 위주로한 국민속문화를 보여주기로 하고, 우리춤을 추시는 몇분에게 전화로 부탁하여보았더니 아,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앞에 창피해서 어떻게 춤을 추느냐는 것이고, 또 병신춤을 잘추시는 두분신도님에게 부탁하여 보았더니펄쩍 뛰시면서 아, 남 망신시키는소리 하지도 말라는것이었다. 그래 내가 그런것이 아니고, 병신춤은 듣기에 좀 망신스러우나 사실은 우리 서민문화의 진 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천대받는 병신들에게도 성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병신춤은 내가알기로는 다른 문화에서 그 유례를 보기힘든 한국서민문화의 독특한 춤이다. 내딴에는 이렇게 두번세번 설명을 했으나 한 사람으로부터는 끝내 시원한 응답을 얻어낼수가 없었다. 나는 할수없이 춤을추시든안추시든 한복입고 참석이나 하여주십사고 부탁드리고 말았다.

1월22일오후 오타와에서 취재팀이 내려왔다. 눈이 많이왔다. 음력설이 가까워 온것이다. 이튿날 토요일 오정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민속문화의밤은 오후6시부터 시작하기로 되어있었다. 나는 되든 안되든 걱정않기로 아주 마음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캐나다인 신도들은 일찍부터와서 일을거들고 6시까지는 모두 자리를잡고앉았는데, 한국인들은 6시가 지나도록 좀처럼 잘 나타나지 않는다. 불안하였으나 한30분 기다렸다가 꽃꽂이 하는분이 와서 순서대로꽃꽂이부터 시작하였다. 차례가 진행되는동안 거의 발 들여 놓을틈없이 법당이꽉차버렸다. 그리고 내 예상을 뒤엎고 치마저고리와바지 저고리를 입고 와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분위기에 휩싸여 노래도하고 춤도추고 장고도 치는것이 아닌가. 병신춤 차례에 들어가서 남자꼽추가 여자언챙이 팔병신을 억지로 끌어내느라고 시간을 끌고싱갱이가 있었으나 그것조차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일정도였다.

캐나다인 신도 가운데는 「Globe and Mail」신문의미술평론가인 John Mays를 비롯, CBC프로듀서, 시인, 작가들도 모두 참석하고있었는데 다들 흐뭇해하고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John Mays같은분은 그 이튿날일요일저녁 참선하러와서 병신춤을추신 보살님을 붙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거기에 멋과 흥이 곁들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하여 주었던 것이다. (계 속)

"韓·比주둔 美兵士들 8천여명이 惡性 임질"

태평양 星條紙보도…작년 한해

(도쿄—) 필리핀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사중 작년도에 페니실린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악성임질」에 걸린 경우가 모두 8천건 이상이었다고 태평양 성조지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숫자는 작년 미국전체에서 보고된 건수의 3배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태평양 연안지역 미군병사를 위해 발간되는 이 신문은 이중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에서 2천7백42건 그리고 크라크 공군기지에서 1천4백13건이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동경지국장 조지 르버츠씨는 주한미군 의사의 말을 인용하며 「주한미군 병사들 간에 임질환자가 지난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말하고 검사결과 이중 약 절반이 신종임질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의료당국은 이 악성임질은 보통 페니실린으로 치료되지 않아 그가격이 약 두배나 비싼 스펙티노마이신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正一 후계자 강력시사

北韓중앙통신 "민족의 길잡이 별"극찬

(동경26일—)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26일 방송을 통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40)을 「민족의 길잡이 별」이며 「우리 민족의영원한 태양」이라고 표현 그가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동안 오는4월1일로 70세가 되는 김일성이 그의 아들 김정일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는 풍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는데 분석가들은 김정일에 대한 이같은 최초의 찬사는 이같은 승계풍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매일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⑭

고마페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보좌신부의 첫 시련

"오해는 마오. 당신은 오랜 군대생활과 2년간의 수도생활을 경험한 신부이기에 그렇게 말한거요. 그러한 인생경험을 거친 신부로서의 데뷔가 싱거워서야 어데 맛이 나겠소?"

그분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능청맞게 말하고 있었다.

"제 인생 경험과 오늘아스랑한테 당한 모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씀입니까? 본당신부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태오 신부, 거기에는 이해하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소. 다만 당신의 신분에 맞는 경험만이 있을뿐이오. 어떻든 새 보좌신부에게, 아니 동양인인 당신에게좀 지나친 사건이라 볼 수 있으나 오늘 당신이 겪은 그러한 모욕과 분노가 앞으로 당신이 걸어가는 사제생활에 큰 교훈을 줄거요."

"뭐, 내가 살아가야 할 사제생활에 큰 교훈을 준다고요? 본당신부님의 농담이 점점 지나치는 것같읍니다. 그럼 저는 항상그러한 못쓸 놈들한테서 모욕과 가래침을 받으며 사목활동을 해야만 된다는말씀입니까?"

나는 다시 한번 항의조로 음성을 돋우며 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태오신부. 나는 당신을 존경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느낀 의지적인 인상과 뭔가 인생의 깊이를 경험한 것 같으면서도 순진성을 강하게 풍기는 당신에게 호감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입가에 미소를띄운채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

나는 뭐라 답변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묵묵히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소.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본당 신자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이민자가 아니면 농촌에서올라온 노동자들이오. 그리고 원호처에서 생활비를 받아사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소. 사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달리 말한다면, 그들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란 말이오. 그동안 우리 본당신부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위한 사목 활동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소. 그런데 오랜 군대생활과 또 수도생활에서 단련된 당신이라면 뭔가 할수있다는 자신을 나는 갖고있소."

"본당신부의 말씀은 나를 칭찬하는 것인지, 혹은 책망하는 것인지 알수가없읍니다."

나는정말 그분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본론적인 말을 하겠소."

그분은 불이꺼진 시가에 다시 불을붙이기 위해 말을끊었다. 그리고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시가연기를 몇모금 길게 천장에로 날리더니 다음과같은 말을했다.

"부리노 아스랑은 우리 본당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요. 어느보좌신부도 심지어는 본당신부인 나도 손을 댈수없는 그러한 사람이오. 그는 세계제2차 전쟁당시 낙하산 부대원으로 노루만디 상륙작전과 베르린 침공작전에서 혁혁한 공을세운 용사요. 그리고 그는 두번이나 부상을 받은바 있소. 전쟁전에는 모범적인신자였으며, 복사단 단장을성실하게 해낼 정도로 본 당을위한 봉사에도 충실한사람이었었다고 하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자 성품이 폭악해 졌으며,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고있소. 그 후 결혼은 성당에서 합법적으로 했으나 점점타락해가는 그를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있소. 그동안 자기아버지가 물려준 얼마안되는 재산은 다 노름으로 날렸고, 현재는 군인퇴직수당과 원호처에서 주는 실업자 수당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오. 일정한직업이 없다기보다 아예 무슨일이든 안하는 사람이며 그가하는 일이란 일주일에 한두번 이웃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걸어 싸움하는것이 그가 하는일이라면 일이오. 경찰국에서도 아예 버린놈으로 그를 취급하고 있으며, 웬만한말썽정도는 눈감아주는 그러한 사람이오. 성당에도 한두번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돈을 얻어가고 있소. 그는 아무에게도 쌍말을하며 무척 내골치를 썩이고 있구료. 내가 이 성당에 본당신부로 부임한지 5년이 되고 있으나 아스랑의 회개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소. 그동안 내 나름대로의 방법과 노력을 다해봤으나 그로부터 받은것은 모욕뿐이었소. 나도오늘 당신이당한 그러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여러번 받은바있소.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그의 가래침을 받지 않은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하오."

"그정도로 불량한 사람이군요. 전 그런것을 모르고, 마치 호랑이굴을 찾아들듯 그를찾아 갔었군요…."

나는 본당신부의 말을들으며 한편 놀랐다. 그리고 그의 가래침을 내 얼굴에 받지않은것을 정말이지 다행으로 생각했다. 아스랑은 말하자면 깡패 두목격이었다. 이러한 그를 겁없이 찾아간내가 좀 당돌했었구나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내야할 내 사제 생활이 만만치 않을것을 예측했다.

"현재 그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오. 하지만 그의본성은 착한사람이라고 난생각하오. 뭔가가 그를 저렇게 타락시켰다고 난 보고있소.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를 타락시킨 그 어떤 이유가 꼭 있을거요."

(계 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 밥 : $2.95	곰 탕 : $3.50
생선초밥 : $4.50	설 렁 탕 : $3.95
오 뎅 : $3.00	빈 대 떡 : 3개 $1.50
오뎅백반 : $3.75	만 두 : 4개 $1.00
가끼우동 : $3.00	에 그 롤 : 4개 $1.50

658 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CHRISTIE MANNING BLOOR BATHURST

東国大学校同門会
第五次 定期総会
발전일로에 있는 東大동문회 제2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 부디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3월27일(토) 오후 6시
장 소 : 한 인 회 관
20 MOBILE DR. TORONTO
TEL. :755—9288
연락처 : 844—8052 MR. 정
282—5632 MR. 조
☆DINNER와 DANCE MUSIC PROGRAM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재 카나다 동국대학교
동문회장 정규영

「어글리 코리언-아메리칸」의 母國나들이

金浦공항 百態萬象

詐欺결혼에…… 달러챙기고…… 거만하기만……

▲교포들은 모국방문서 돌아올때 하와이나 LA서 또한번 번거로움을 겪어야한다. 이번에는 미국세관원들이 짐 구석구석을 뒤지며 밀수품이 없나 시간을 끌며 검사해 마중나간 가족들이 짜증스러울때가 많다.

○… 미국·캐나다등 북미지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가 지난 6월말현재 68만5천명에 이르렀다. 재외동포의 대명사로 통하던 재일동포의 숫자는 67만명. 아제 모국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재미동포가 재일동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된 재미동포사회라고 하지만 재미동포사회가 급격히 불어난 것은 과거 20년간 이었다. 따라서 지난 70년대이후는 재미동포가 모국에 끼친 사회적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더구나 재미동포는 재일동포와는 달리 높은 교육수준과 비교적 부유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민은 하나의 붐을 이루었고 가족 [illegible] 있다는 것은 집안의 자랑거리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재미동포들이 빈번히 모국을 내왕하게 되면서 갖가지 말썽과 문제도 일으켰던 게 사실이다. 많은 재미동포들이 소리없이 모국을 돕고 사랑하는 반면, 일부는 모국에서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모국인의 눈에 굴절된 재미동포의 인상으로 남게된다.개구리가 올챙이때 생각못한다는 속담처럼 모국을 떠난지 몇년 안됐는데도 자신의 뿌리인 모국의 문화, 언어, 관습, 제도를 내놓고 나무라는 재미동포가 있다. 밀수루트가 종전의 홍콩에서 로스엔젤스로 바뀐것도 재미동포의 굴절된 인상이다. 위장이민, 사기결혼, 달러유출등 재미동포가 오가는 길목에서 지켜보면 이들이 한민족의 핏줄을 나누고서 어려운 모국에 갖다주는 것보다는 푸리는 피해가 많은 것 같기도 하다.

모국에 온 재미동포들의 인상을 단 한마디로 말하라면 대개가 거만하다는 대답을 한다. 특히 이들을 많이 대하는 공항의 출입국관리소직원, 세관원, 택시운전사, 호텔종업원들의 인상에는 재미교포는 『거만하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특히 여자인 경우가 더욱 그렇다.

아직도 후진성을 못면한 한국에서 세관검사가 까다로운 것은 유치산업보호를 위해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세관검사가 까다롭다』고 불평이 많은것이 재미동포들이다. 재일동포는 세관에서 사정조인데 반해 재미교포는 항의조인것이 대조적이다.

김포공항의 밀수라면 홍콩이 그 루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뉴욕, 로스엔젤스 도 밀수루트로 김포공항에 알려지고있다. 밀수단속을 크게 완화한 올해만도 재미동포의 밀수는 16건에 약10만달러어치. 밀수품도 밍크, 다이어먼드에서 최근에는 의약품, 웅담등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산 곰값을 재미동포가 올려놨다는 말이 나올정도가 됐고 결국 거의가 가짜임이 드러나 모국인들에게 가짜웅담을 선물한 셈이됐다.

이들이 밀수한 물건은 곧 달러의반출로 연결되는 것이 통례여서, 모국에 그중의 피해를 주고가는 결과가 된다.

재미동포들이 모국방문에서 돌아가면서 통상 저지르는 범법행위가 달러유출이다.

올해들어 짐속에 달러를 숨기고 김포를 빠져나가다 들킨 재미동포가 4명에 액수는 45만달러. 몸이나 핸드캐리어속에 들고 나가다 경찰에 잡힌 것까지 합하면 엄청난 액수가 된다.

반출되는 외화는 거의가 재산을 정리, 미국으로 가져가는 돈이다. 사실 들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재미동포가 밀반출하는 돈만도 1년에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달러를 유출시키기 위해 이들은 온갖 희한한 방법을 다쓴다. 달러에 금속가루가 붙어있어 X레이에 투시되는 걸 막기위해 새돈을 밤새도록 비벼 헌돈으로 만들고, 이것을 병풍속에 붙이는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재미동포들이다. 한국에서 1백달러권 고액권수요가 많은 이유중의 하나가 재미동포의 밀반출에 악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에 투서를 많이하는 것도 재미동포들. 물론 건전한 시정책을 건의하는 것도 많지만 담당공무원을 골탕먹이는 내용도 더러있다. 분명히 밀수를 하다 들켜 현행범으로 벌금등 처벌을 받고도 미국에 돌아간후 상급기관에 투서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이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은 자체조사대상이 되는 시간낭비와 곤욕을 치루게 마련이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70년대 재미동포들이 벌인 결혼사기극이 적지 않았다.

미국에서 큰사업을 벌이는양 속이고 모국에 돌아와 1류여대를 졸업한 여자와 결혼, 미국에 돌아가면 노동, 또는 기껏해야 햄버거집이나 하는것이 탄로나 결혼이 깨지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주간지를 장식했다. 또 미국에서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면서 모국에 돌아와 새로 결혼하고 여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되돌아 갔으나 처음 동거하던 여자의 위협때문에 새 신부를 버리는 비정한 재미동포도 있었다.

미국에서의 3각관계가 서울에까지 건너오는 추태도 있었다. 지난 77년 로스엔젤레스에서 유학한 김모군은 이모씨의 부인과 통정하다 들키자 오히려 5만달러를 내놓으면 아내를 돌려주겠다며 협박, 이씨가 속이 상해 귀국하자 김군이 모형권총을들고 서울까지 따라와 종로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되었다.'

폰팔(Phone·Pal)로 한국에 있는 두청년과 사귀며 5백여만원어치의 국제통화를 하며 양쪽에 결혼까지 약속한 낯두꺼운 여대생 재미동포도 있었다. 이 아가씨는 한국에 돌아와 두청년중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머지 한 청년에겐 실연과 함께 2백만원의 국제전화료를 바가지씌우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줬다.

결혼사기중에 또 적지 않는것이 한국에 나와 모국의 아가씨와 결혼한후 곧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되돌아가서는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74년에는 이런 사기에 걸려든 모국의 새색시가 2백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누구나 미국에 가면 잘사는 줄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사기를 하는 동포도 가끔씩 나온다.

지난77년 플로리다에 사는 재미동포 정철씨부부는 모국에 있는 처남과 짜고 2백50명을 미국에 불법취업시켜주고 ,소개비조로 3억여원을 받았고 97명으로 부터는 모두 4천7백만원을 소개비로 받고도 취업을 시켜주지 않았다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또 위장이민이 판을 친 적도 있었다. 지난70년 사업가 이동섭씨는 부인및 3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영주권 취득후 이를해 교포여권을 얻어 전원귀국 한국에서 생활하다 들켰다. 이들 위장이민하는 재미동포(?)들은 모국에서의 각종 의무를 면제받는 이외에 긴급한 사태라도 발생하면 빠져나간다는 도피성 이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각종사기를 저질러 돈을 챙겨 고 미국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부쩍늘었다 지난7월 미국으로 도망간 채권자를 뉴욕까지 쫓아가 현지폭력배를 고용 납치극을 벌여 현지교포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을 엄연한 의미에서 재미동포가 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지만 모국의 국민의 눈에는 또하나 재미동포의 굴절된 인상이 될 뿐이다.

〈서울본사 사회부 김수종기자〉

▲김포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재미교포에 대해서는 출입국때 검사가 심하다. 어떤때는 밀수꾼들이 『나를 밀수꾼으로 보느냐』고 큰소리치다 가방에서 시계, 다이어등이 쏟아져 나오면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많은同胞들이 소리없이 母國돕고 사랑하지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못하고 分別없는행동

文化·言語·관습·制度 내놓고 나무라 기도 密輸·취업사기등으로 뜻있는 同胞들에 먹칠

공 고

재 캐나다 한인 축구협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회코저 하오니 여러 체육인과 특히 축구를 아끼시는 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바라나이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3월12일(금) 저녁 8 시
장 소 : 크린톤 하우스
기타연락 : 박원모(922—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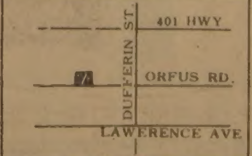
1982년2월27일

재캐나다한인축구
협회장 : 임 경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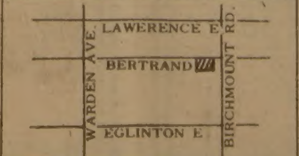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송써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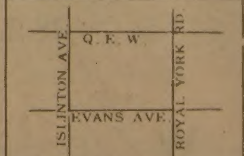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55 BERTRAND 752-7292
노옴·존


평 일 7:30-4:00P.M.
토요일 7:30-11:30A.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할리


WEEKDAY 7:30-4:00P.M
토요일 7:30-11:30

INTERNATIONAL WEEK

토론토대학교에서 한국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행사이므로 많은 교민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3월2일(화)오전10시~오후7시
장소 : 인터내쇼날 스튜던트 센타
33 ST.GEORGE (University of Toronto)

프로그램 순서
● 태권도 시범
● 한복 패션·쇼
● 국악연주
● 서예
● 한국슬라이드 상영
● 한국음식 소개

도와주신분
● 김미영한국무용연구소
● 미도파 백화점
● 신세계 여행사
● 한국관
● 거북이 선물센타

주최 : ● 실학 Society ● KUTAS ● KUST

"北傀軍위협 심각한 水準"

한국軍事力보다 2倍우세

戰爭物資 이양「협의覺書」추진

한국有事時에 迅速지원明文化

위컴、本社 曺淳煥 駐美특파원과 特別회견

◇本社 曺淳煥과 특별대담을 갖고있는 존·위컴 주한미군사령관。

【워싱턴 23日=曺淳煥 특파원】 존·위컴주한미군사령관은 북괴군사력은 지상군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군보다 2대1 또는 그이상 앞서있으며 이에따라 미국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긴급군사장비와 병력을수송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의 마련을위해 「협의 각서」가 필요하다고 23일 말했다. 위컴사령관은 이날 美상원군사 준비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은 증언을 마친뒤 군사소위사무실에서 본기자의 질문에 다음과같이 답변했다.

—북한의 군사력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2對1로 한국에 영역하다고 장군은 조금전 증언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북한의 병력우위에 관해 좀더 자세히 말해달라。

▲위컴사령관=북한의 군사력우위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이미 그대부분의 내용이 인쇄된걸로 안다。북한은 가동할수 있는 전투대대수에서 한국에서 우리가 갖고있는 것보다 약배나된다。함정수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약 4배、항공기수에서는 약 2배、탱크수에서는 3배、포는 2배이며 거기다가 세계에서 그수가 제일많은 10만의 특공대를 갖고있다。이렇게 얼론 어림잡아 셈하더라도 북한이 많은 군사부문에서 한국의 2배가 된다。

—장군은 전쟁비축 물자를 유사시에 신속히 한국에이양하는 각서협정이 韓美양정부간에 이뤄되어야한다는 증언을했는데…。

▲위컴=미국은 한국에서 한국군 그리고 韓美통합군을 위해서 상당량의 전쟁소비물자를 비축하고있다。또 매년 상당한 전쟁물자가 한국에수송、추가되고있다。위기시에 그비축된물자를 한국군에 신속히 이관하는 법적절차를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韓美양국이 협의각서작성을 위해 곧 노력해야할것으로 생각한다。조속히 각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긴급시에 전쟁비축물자를 한국군에 이양하는「유사시」에 관한 개념설정이 각서에 규정되어 합의해두어야할것이다。

—전쟁비축물자이양협의각서는 나토(NATO)상호지원조례와 같은것인가。

▲위컴=나토협조례라기보다는 단순히 理解각서며 협의각서다。앞서밝힌대로 전쟁물자를 신속히 한국군에이양하는 법적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美본토로부터 전쟁물자를 지급받는 파이프라인을 열어두는것이다。나는 작년에도 전쟁물자를 한국군에 긴급이양하는 법적절차가 필요하다는것을 의회에서 증언했는데 그각서초안이 의회의원들에게 배부되고있는 것으로 안다。

—그협의각서를 의회가 승인할것으로 본는가。

▲위컴=물론 기다려 두고 봐야할것이다。그러나 별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한다。

—작년2월 全斗煥 한국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양국정부는 한국이 F16신예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북한이 F16기에 맞서는 전투기、예컨대 MIG23기를 소련으로부터 구입하게될것으로 본는가。

▲위컴=한국이 F16기를 구입하는 문제는 한국정부가 선택할 방법으로 아직도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나는 본다。북한이 MIG23기를 구입할것인가의 여부는 金日成에 물어봐야할 성질의 것이다。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전문가로서 북한이MIG23기를 구입할 가능성에대해 귀하의 평가를 알고싶다。

▲위컴=추측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좀 망설이다) 말로 얘기할수 없다。

—주한 미군의 현대화계획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중요부분은 어떤것인가。

▲위컴=좀전에 상원에서도 증언했지만 주한 미군철수계획이 취소된것은 빠뜨려서는 안될 가장기본적인 문제가된다。全斗煥 대통령은 작년에미국을방문해서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한끝에 주한미군철수계획취소를 공동성명을 통해 확정적으로 밝혔다。주한미군현대화의 일환으로 헬리콥터와 포를증강시키며 정보대대능력을 증대하고 있다。주한미공군은 구식전투기를 F16전예기로 대체하며 적의탱크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A10기도 곧水原기지에 배치하게된다。또 한국에 전쟁비축물자를 계속증가시키고있다。내달에는 한국군과 미군에의한 세계최대의 팀스피리트작전이 실시된다。이렇게 해서 주한미군은 적대행위에 대비하는 저지력을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A10기 1개비행대대는 언제 한국에 배치되는가。

▲위컴=오는 3월부터 배치되기시작한다。A10비행대대를위해 水原공군기지가 시설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 안다。3월중에는 A10비행대대가 활약을 개시할것이다。

—장군은 북한의전력이 본격적이며 그들이계속 공격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고 증언했는데 미군이 한국에주둔하고 있는데도 북한이남침을감행할 목적으로군대의 공격능력을증강하고있는것인가。

▲위컴=그것은 金日成과 金正日의 의도에 관한 문제여서 점칠수는 없다。군사력만으로서 내가 해야할 일은 북한군사능력과 전력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다。한국말에「有備無患」(정확한 한국발음으로 표현)이란 좋은 말이 있지 않은가。나는 그 잠언에 따라 북한의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침략저지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중공과 소련중 어느쪽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장군은 생각하는가。

▲위컴=그것은 정치와 정보에관한 질문이 된다。양쪽이 다 북한과 관계를 갖고있다고 말하는것외에 나로서는 더 말할수 없다。

—끝으로 장군이 본 한국군의 사기는 어떤가。

▲위컴=수병、공군병사、해병대병사를 포함한 한국군인들은 세계최강군대의 하나로 나는 생각한다。한국군인들은 강인하며 잘훈련되어있고 잘장비되어 있으며 준비태세도 완벽하다。이런 한국군대와 협조해가는 미국군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다。

◇曺淳煥특파원

3월중 A10·F16機 추가배치

駐韓美軍 侵略沮止능력 향상

北傀엔 10萬의 特攻隊…세계 最多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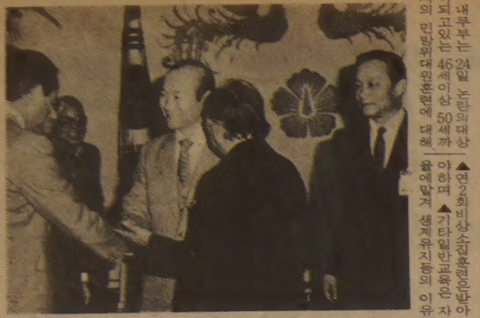
46~50세 民防衛교육훈련 自律로

年2회 非常소집만

내무부는 24일 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 46세이상 50세까지의 민방위대원훈련에 대해、▲연2회비상소집훈련은받아야하며 ▲기타일반교육은 자율에맡겨 생계유지등의 이유로 참가하지못할경우에는 교재로 대신하도록 최종결정을 내려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50인이상의 직장민방위대와 학교는 직장의장(長)에게 교육을일임했다。

내무부는 46세이상 대원에 대해 올해부터 다시교육을실시키로 한것처럼 알려진것은 『와전된것』이라고 해명하고 민방위기본법상으로는 17세에서 50세까지의 민방위대원은 모두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亞洲新聞재단 理事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하오 청와대에서 아시아新聞財團(PFA)의 아소케·쿠마르·사르카르理事會의장(印度人)과 金相万東亞日報회장등 理事團11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光杓문공부장관이 배석했다。【사진】

日·中共、民航협상

【東京24日聯合】일본과중공은 24일 韓半島상공을 통과하는 단축항공노선개설과 운항횟수증가등 미결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민간항공협상을 재개한다고 일본운수성이 밝혔다。

日운수성관리들은 이날 실무회담에서 일본과 중공항공사들에게以遠權을부여하는문제도거론될것이라고밝혔다。

소식통들은 최근 일·중공항공노선승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비추어 운항횟수증가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를것이 확실하지만 이원권문제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統一方案실현에 노력

全대통령、統一院보고받아 國際學術회의도 추진

국토통일원은 24일 全斗煥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실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한 內外의 지지기반을 확충하는것을 업무수행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孫在植통일원장관은 이날 올해 力點시책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深層연구를 하고 통일정책전략을 계속 개발하는동시에 통일안보에 관한 연수와 계몽을 적극적으로 펴고 南北대화의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원은 또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더욱 확산키위해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20개 示範사업과관련、여러가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그實現에 대비키로했다고 밝혔다。

통일원은 이어 통일안보교육의 체계화를위해 통일안보교육 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산주의 비판教材등을 발간키로했다。

통일원은 또 금년에 平統자문위원、근로청소년등 2만1천9백명에게 통일안보 연수교육을 실시키로했다。

또 통일後繼세대에 대한 평화통일의지 확립을위해 민족통일 중앙협의회가 추진하는 初·中·高학생및 근로청소년대상 통일문예작품 현상모집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國內油價引下 촉구

국민당、국민회생 강요하지말라

국민당은 24일 油價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產油國의 原油價가 계속인하되고 있는데도 국내油價에 대한 인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다는정부당국의 태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油價를 인하토록 촉구했다。

李成一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는 原油需給과 가격에 대한 무계획적인 전망으로 하루 9만여배럴씩 남는데도 계속 高價로 도입해야하는 원천적인 불평등계약유지와 精油회사의 이익보전에만 급급함으로써 더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면서 『차제에 인하를 단행、정직한 정부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정부가 장담하고있는 한자리숫자의 물가억제에 솔선할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各級학교등에 行政간섭없애

소풍·수학여행은 學校長 재량으로

문교부는 24일 각급학교에 가해지는 각종행정적인 간섭과 통제를 일체 없앤다는 원칙아래 초·중·고교생들의 소풍과 수학여행을 학교장재량에 맡기는것을 포함、그동안 만든 1천3백69건의 각종훈령、지시、예규、보고양식중 1천2백74건을 폐기하고 95건만을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3월1일부터 각급학교는 문교부、각시도교위등으로부터 종래받아오던 각종지침、지시사항、협조요청등에서 완전해방되며 교장재량으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수업을 할수있게됐다。

이번에 정비된 1천2백74건의 문교예규는 ▲교과목과 특별활동지도에관해 행정기관이 시달한 일체의 지침과 협조사항 ▲학사관리업무분야에 관한 일체의 규정 ▲학생생활 지도분야에 관한 시달사항 ▲교원인사관리지침등 광범위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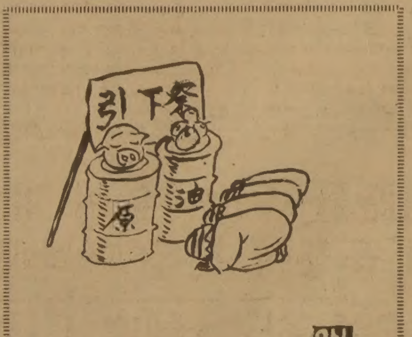
印尼장교가 蘇간첩

【자카르타23日UPI=聯合】소련을위한 스파이행위로 지난4일 체포된 인도네시아의 한 고위장교는 소련첩보요원에게 동남아3개전략해역의 해도와 대잠수중음파탐지기(SONAR)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보당국의한 소식통이 23일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소식통은 소련측에 넘어간 정보중에는 남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전략해로인 숨바해협에설치한 SONAR에대한 자료도 포함돼있다고 말하고 소련은 이정보를 이용、소련군함이 통항이 금지돼있는 이해협을 잠수함으로 통과할수있게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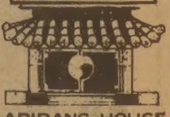


그동안 너무너무…

地平線

7년만에 학생들의 소풍과 수학여행이 새봄을맞아 자율화된다。머리기르기、교복자유화로 가슴이부픈 학생들에게또하나의반가운소식이다。소비절약운동에 호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통제돼온 소풍과 수학여행이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돕고 현장학습효과를 높이기위해 다시 풀린것이다。▼수학여행처럼 즐거운것은없다。여행은 현실의문을나서 꿈의세계를 헤매는것이라고 모파상은 말한일이있다。새로운 풍경、낯선 풍속속에서 많은것을배우고 꿈이부푸는 것이다。그동안 국내의 관광시설이 놀랄만큼 발달되었지만 일부학생에겐 거의 그림의 떡이었다。디즈넬랜드를 만든다、민속촌이 생겼다、일일관광권이 되었다、당일 코스가 개발되었다는등 국내 레저 여행이 쉬워지긴했으나 학생단체여행이 제한되어왔기 때문이다。70년10월 忠南毛山건널목에서 수학여행버스가 열차와 충돌、어린학생 45명이 목숨을 잃은 이래 수학여행은 사실상 크게 억제되어 왔다。▼외국에서는 유드호스텔이 보급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우리나라에도 유드호스텔이 있으나 활용이 잘안되고있다。19세기말에 독일청년사이에 유행한 반더포겔 (Wandervogel=철새) 정신은 도보여행을 통한 애향·애국운동이었다。우리나라에서도 자연소로 정비운동이 퍼지고있는만큼 유드호스텔의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볼직하다。숲속이나 농촌에 청소년여행촌을 만드는것도 좋을것같다。고적답사여행도 유익하나 산업체시찰도 학생들의 눈을높이는데 도움을 줄수있을것이다。농번기에 모내기를 돕기위해 농촌에 민박하는것도 검토해볼 문제다。시간이 남아돌아 닭장(고고장)에나 가는 도시의 청소년들에게 싱그러운 농촌의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는 말할필요조차 없다。▼옛날 고려때 刻燭賦詩라하여 여름철엔 초용하고 시원한 僧房을 빌어 及第한 선배를모시고 詩賦를짓던 連成詩會같은 것은 본받을만한 것이아닐까 생각된다。燭에금을 그어놓고 그부분이 탈때까지 시를짓되 성적을매기고 長幼有序를지키면서 화기애애하게 어울린모습은 연상만해도 즐겁다는사람이많다。수학여행이라고 꼭 수백명이함께갈것이 아니라 취미에맞춰 목적지를 달리하는것도 괜찮을것이다。▼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우리산천을 누루 여행할 수있게 수학여행을 전환하는 방향을 이기회에 연구했으면 좋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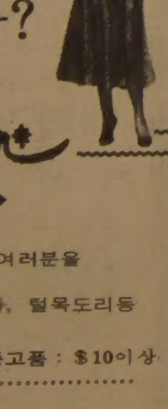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FURS
Paul Magder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상륙!
미연방정부 특허품

★다른 약으로 별 효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회사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쥬-스 : 위궤양·소화불량·장염·변비·당뇨병·고혈압·저혈압·풍으로인한 신경마비·빈혈·담석증·뇨석증·관절염·신경통·월경통·천식·알레르기성체질·전신쇠약과 식욕부진, 기타 많은 좋은 효과 있음.

●젤리(가정상비약) : 화상·외상·치질·입술 부르튼데·습진·여드름·무좀·벌레 물린데·두드러기·피부암·햇볕에 탄데·정맥류·알러지·대머리·잇몸앓이·부인과질환·동상·임신으로 배가 튼곳 등외.

●힐 로숀 : 신경통·관절통·근육통·두통·타박상 발 삔데 등.

* 본 알로베라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20 DUNDAS ST. W.
TORONTO, ONT. M6S 4W6
CANADA
(416) 769-4347(B)
248-1362(H)
정효기(Hyo-Ki Chung)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영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퀸)

美、對蘇 禁輸조치 失敗

中斷 2개월만에 곡물販賣 재개

"友邦비협조…實効없어"

蘇、9월까지 2천7백萬t 구입

【워싱턴23日AP·UPI=聯】소련은 폴란드위기와 관련한 미국의 대소경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두달동안이나 중단돼왔던 對미곡물구입을 재개했다고 존·블로크미농무장관이 22일 말했다.

블로크장관은 이날 미국주지사협회산하 농업및 대외무역위원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행정부의 견해로는 과거 미국의 對소곡물수출금지 조치가 실패작이었다」고 밝히면서 「여타우방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한 곡물수출금지는 실효를 거둘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폴란드사태와 관련한 對蘇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소련에 대한 장래의 곡물판매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고 있는데 소련은 오는 9월30일까지 이같은 제재조치에 관계없이 2천3백만톤의 미국곡물을 구입할수 있다.

이에따라 소련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10만톤의 곡물을 다시 수입하기 시작, 금년도 소련의 對미곡물구입량은 1천1백50만톤에 이르렀다.

◇베이루트 爆發사고 現場 23일 베이루트서부 번화한 상점가에서 발생한 자동차 폭발사고현장。거리에 쓰러진 한부상자가 구조를 기다리고있으며 자동차가 화염에 휩싸여있다。【베이루트 23日 AP=聯】

폐灣基金 設置키로

뉴델리協力會議 實務토의서 합의

【뉴델리23日UPI·로이터=聯】「뉴델리협력회의」(南南회의)에 참석중인 세계44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23일 실무토의를 통해 개도국들에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기금과 개도국의 합작사업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기위한 페르시아만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회의대변인겸인 마니·이예르인도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회의 대표들이 인도가 제의한 1천5백만~2천만달러규모의 공동기금설치안과 쿠웨이트가 제의한 페르시아灣기금설치안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예르대변인은 이들 2가지 안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뉴욕에서 열릴 「77그룹」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개막에이어 2개실무위원회로 나뉘어 분과별토의에 들어간 개도국대표들은 이미 이날 식량및 에너지문제와 관련된 선진공업국들과의 협력에관한 토의를 끝냈다.

美、새核軍縮案 준비중

미사일數·파괴력制限등 具體化

【워싱턴24日AP=聯】레이건美행정부는 현재 장거리핵미사일과 폭격기의 파괴력까지 제한할것을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核무기군축협정안을 준비하고있으며 레이건대통령은 폴란드사태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진전상황에따라 오는여름 이제안을 발표할지도 모른다고 행정부관리들이 23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레이건행정부가 지난가을부터 정부기관내의 컴퓨터와 분석장치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준비해왔으며 이 새로운 방식은 핵탄두의 수와 핵무기의 정확성뿐만아니라 미사일발사대의 추진력까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들은 유진·로스토우美군비관리군축국장이 최근 행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제안의 내용에 관해 아나톨리·도브리닌 駐美蘇대사와 논의를 했으며 도브리닌이 이 내용에대해 관심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中共의核 蘇全域 공격권에

亞洲지역核균형에 重大변화招來

【東京23日=聯】중공은 그동안 꾸준한 핵기술발전을 이룩, 한국과 일본등 인접국은 물론 소련전역을 공격할수있는 핵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의 핵균형에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상원외교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미·중공군사협력의 의의」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밝힌것으로 마이니찌(每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마이니찌신문이 인용한 이 보고서는 중공이 계속해서 핵전력을 급속히 강화해나갈경우 소련의 대중공선제공격을 유발시키게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중공의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CSS3형 4기(사정 7천㎞) CSS4형 1기(사정 1만3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CSS2형 85기(사정2천5백㎞)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CSS1 약50基(사정1천8백㎞) ▲핵적재용TU16폭격기 90대외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중이며 10여만명의 전략핵미사일부대를 갖추고 있다.

이어 이보고서는 이같은 중공의 핵전력 강화로인해 미국주변의 핵전력및 억지력의 균형이 마침내 미·소두나라만으로 설명될수 없게되었다고 결론지었다.

日、획기적인 癌診斷法개발

血液 10cc 정도채취로 可能

【東京24日=聯】불과 1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조사하는 것 만으로 위나 직장에 생기는 암을 조기 발견할수 있는 획기적인 진단방법이 일본 天堂大學 의학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25일부터 열리는 제19회 일본소화기 외과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이 진단방법은 암환자의 경우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특성을 이용한 방식이다.

면역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수 임파선세포집단의 수를 측정함으로써 암여부를 진단한다는 이방식은 위나 직장뿐 아니라 다른 조기암에도 응용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치료에 큰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지금까지의실험결과 혈액 10cc중 건강한 사람의 임파선세포집단이 4백50~1천1백69개사이인데 비해 위암·식도암·대장암등의 암환자의 경우는 25~3백80개로 나타났다.

外信알面化

◆스즈끼、레이건訪日초청=일본정부는 레이건미 대통령에게일본을방문해주도록공식 초청한것으로23일알려졌다。미·일무역마찰 해소차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방문중인 에사끼·마스미일본무역특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스즈끼·젠꼬수상의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AP】

◆카스트로 暗殺기도犯=피델·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을 암살하려던 5人의 특공대가 체포되어 전원 쿠바에서 처형됐다고 마이애미본부를둔 한 망명단체소식통이 23일 밝혔다。【마이애미=AP】

國際信用 보험자聯盟 84年총회 서울서開催

미국의 수출입은행을비롯 28개국 36개기관이 회원으로가입해있는 國際信用投資保險者聯盟이 오는 84년도 정기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결정했다고 24일 수출입은행이 발표했다.

수출입은행은 이 연맹의 정회원으로가입돼있으며 현재 홍콩에서열리고있는 82년총회에 李泰浩행장등 대표단이 참석하고있다.

메아리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이데올로기批判」강좌를 설치한다 하고, 시중에는 마르크시즘批判서적이 해방후처음으로 서점책장에 진열되어 판매중이라한다. 이두사실은 「共産主義」란 妖怪에 대해 그정체를 이제부터 직접 손쉽게 파악할수있도록 대응조치한다는것을 말하고있다. 이 조치에 대해 評者를 마다 共産主義를 「체험」으로써 禁壓할수있었던時代는 지났고 이미 6·25를 경험치 않은 世代가 全體人口의 반을 넘어선 지금에와서는 「理知」에 호소하여 共産主義에 대한 姿勢를 굳히게하는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타당스럽다고 환영하였다.

사실 수긍하고 찬성할 일이다. 이제는 이런共産主義이데올로기에 접해도 「安全」하다고 볼수있는 그런 우리世上이 된셈이다.

우리뿐 아니라 오늘날 共産主義에대해 外部世界에서 아직도 魅力을느낄 나라가 과연 몇군데나 될까? 확실히 마르크시즘은 資本主義발전의 初期段階에서나 걸맞는 호소력을 지녔다는게 지금의 공통된 평가이다.

産業革命의 초기 英國에서처럼 소위 프롤레타리아的 勞動者階級의 大群이 있거나 所得에 커다란 不平等이 있었던 時代, 발전이 일부의 都市나 地域에 집중하여 先進部門과 後進部門간에 所得의 큰 隔差가 있었던 時代, 封建的인 制度와 상태가 많이 잔존하여 그것이 階級구조나 계급투쟁의 概念을 상당히 現實的인것처럼 投影하고있던 時代에는 마르크시즘이 사람들의 이끌림을 가졌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1백년이지난 지금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前提」로 삼았던 그런 社會體制가 그대로放置되어 존속된다고 할수 있을까?

대답은 否定的이다.

오늘날 「所有」는 자꾸만 廣範圍하게 많은 사람에게 擴大되어 가고 社會의 鬪爭형태는 階級間이라기보다 職業集團間, 혹은 地域集團間의 것으로 변하고있다. 民族이나 國家意識이 階級意識보다는 우월하고 「無階級社會」에의 運動이나 社會統合운동은 바로 마르크시즘의 革命主張이나 辨證法的過程으로써가 아니라 政治的對話및 타협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마르크시즘은 時間을 초월하여 眞理라고하던 迷信은 迷信으로 끝나가고 있는참이다.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있어 이제까지 예사로넘긴 「北의이데올로기」를 꽉훑고넘어가야 한다는뜻에서도 강좌신설이나 禁書解除는 잘된 일이다. 南北이 共有할 하나의 이데올로기 (시나리오)(허먼·칸)를 다듬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란 필요한것이다. 그래야 또 참된 批判力이 생겨날수 있다.

日·加、對蘇·波 추가制裁

借款중단·負債변제 協商않기로

【東京·오타와23日AP=聯】일본과 캐나다는 23일 미국을비롯한 다른서구국들과 보조를 맞춰 폴란드의 계엄령선포에대한 보복조치로 소련과 폴란드에대한 추가제재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야자와·기이찌(宮澤喜一)일본관방장관은 이날 ①새로운 수출차관공여중단 ②폴란드의 對日부채변제재조정협상중단 ③駐일폴란드외교관들의 활동제한등 3개항의 對폴란드제재조치와 ①日·蘇과학기술협력협상연기 ②日·蘇연례무역협상연기 ③駐日소련외교관들의활동제한등 對蘇추가제재조치를발표했다.

한편 캐나다외무성은 이날 성명을통해 소련과 폴란드에 대한 일련의 경제·외교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마크·맥기건외상은 캐나다 정부가 폴란드계엄조치에대한 항의표시로 ▲식량구입차관을 제외한 모든 對폴란드 신규차관제공중단 ▲폴란드부채변제재조정협상연기 ▲소련및 폴란드항공기들의 캐나다 취항제한 ▲폴란드와의 학술교류중단 ▲캐나다주재 폴란드외교관들의 활동제한등 일련의 제재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蘇상품 輸入제한 合意

EEC 10개國 外相會談

【브뤼셀23日共同·AP=聯】구주공동체(EEC) 10개국은 23일 폴란드의 계엄령이 완화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폴란드군사탄압과 관련한 소련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기위해 소련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마스·반·데르·스토엘 네덜란드외상이 밝혔다.

스토엘외상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EC외상회담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소련상품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이제한조치의 세부사항은 EEC관계자들에 의해 마련돼 가능한 조속승인을 얻기위해 EEC10개국정부에 각각 제출될것이라고 말했다.

EEC관계자들은 EEC의 수입제한대상에 캐비아·다이어먼드·자동차·카메라·모피·주류등 기호품과 기타 제조품이 포함될 것이나 에너지는 제외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들은 EEC의 소련상품수입제한이 소련에 강력한 「정치적신호」를 보내게 될것이며 서독에 불편을 주지않은채 소련에 타격을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살바도르 近海서 美구축함 情報수집

【워싱턴24日UPI=聯】미해군구축함들이 정보수집 임무를 띠고 지난2개월간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근해에 파견되어왔다고 미행정부관리들과 정보소식통들이 23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첩보용 최신전자장비를 갖춘 스프루언스급구축함 데요호가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간의 폰세카만에서 2개월간의 임무를 끝내고 24일 사우드 캘리포니아주의 찰스톤에 돌아오며 데요호와 교대로 한명이 밝혀지지않은 구축함1척이 폰세카만에 파견되어있다고 말했다.

OPEC會議 難航예상

과잉供給 해소방안싸고 內紛

【런던23日路=聯】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세계적인 원유공급과잉현상및 이로인한 油價인하 위협문제에 관한 긴급石油相회의를 개최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것으로 서방석유업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아랍석유업계 소식통들은 오는27일의 OPEC회의 날짜를 앞두고 現OPEC의장인 알·오타이바 아랍 에미리트연방(UAE) 석유상이 이에관한 회원국들의 의사를 긴급 타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원유공급과잉해소방안을 둘러싼 OPEC의 內紛은 아마도 13개 회원국중 일부가 현싯점에서 OPEC의 중추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만나기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서방석유업자들은 지적했다.

◇美조지아주의 포트베닝기지에서 장애물과훈련을 받고있는 엘살바도르장교후보생。

世界의社說

軍援만이 解決策아니다

요미우리(讀賣)신문(日·20日字)

서방지도자들은 中美에서 누구를 적으로 누구를 우방으로 할것인지 지금의 상황하에서는 그구분이 확연치않아 골치를 싸매고있다。정말 현실의 세계는 옛날 레이건이 출연한 서부극처럼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확실치는 않다。그럼에도 레이건씨자신은 그구별을 선명히 하고있다。

모든 악은 국제공산주의에 있고, 이를 배경으로 쿠바와 니카라과가 돕고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내전이 그치지않고있다고 단정한다。레이건씨는 최근 CIA에 좌익게릴라에대한 구체적 대항책을 세울것을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언론계는 크게반발한다。내전은 악명높은 「14人가족」의 영구지배에 민중이 들고일어났기때문에 생겼으며 쿠바가 지원하고있는건 사실이지만, 군민통치에대한 민중의 항거로 어쩔수없는 일은 아닌지。이런 견해로 프랑스 멕시코가 좌익게릴라측을 돕고있다。월남전개시당시와 상황이 흡사하다。그때도 월남내정치·사회적 현실과 갈등을 세심하게 검토할 여유를갖지못한채 통킹灣사건등을 계기로 미국은 무모하게 개입했다。미국이 같은 길을 또 걷는것은 아닌가。

이대로 둔다면 내전은 이웃과 과테말라로 비화해 좌익정권이 설 위험도있다。미국의 군사원조 하나로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이와 병행해서 경제개선문제에 힘을 쏟아야한다。

中美서 西方의 敵은 누구이며 友邦은

니카라과에 直接말할수있는 기회를

英엄저버派遣은 큰 失手

엄저버(英·21日字)

다음달 실시되는 엘살바도르 總選에 엄저버를 파견키로한 캐링턴외상의 결정은 커다란 정치적 실수이며 (소송)비사례에 불과하다.

이 결정은 영국의 對美협력이 유럽과 미국자체에서 엇빠지고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영국이 레이건 美대통령의 中美정책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게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함을 입게될것이다.

이결정은 또 다음달 28일 두아르테대통령의 군사혁명정권에 의해 실시되는 選擧는 민주주의를 戲畵化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허히 정부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단계에서 總選을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없다.

지난 2~3년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등의 政敵史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거혁명을 빈 독재행위에 반대하여 정적에 목숨을 거는 사례를보여주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美독재정권에 대한 원조를 늘리거나 니카라과 산디니스타에 대한 위협과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3가지 중요한 실수를 범했다.

미국과 中美독재정권간의 수치스런 同盟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쿠바와 소련의 좌익사상이 이지역에 침투할 수있는 새롭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전체서방맹방들을 제3세계와의 不和로 이끌고 있다는것이 바로 이 세가지 실수이다.

왜 니카라과를 憎惡하는가

뉴욕타임즈(美·22日字)

왜 미국은 적극적으로 니카라과를 지원하지못하는가。과거 후버는 볼셰비키라 여겨지던 멕시코에 대한 벽을 찼고 트루먼, 아이젠하워는 유고를 지원했으며 레이건도 짐바브웨 좌익정부를 지원하고 중공에도 원조를 주고있다。

무엇때문에 미국은 니카라과를 증오하는가。레이건행정부는 니카라과가 온두라스를통해 엘살바도르에 무기를 몰래 보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니카라과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니카라과를 믿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주어라。그들에게 이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댓가가 지불되야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댓가는 지불할만한 것이다。

만일 엘살바도르만이 문제이고 도미노이론이 문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그정도 실언을 한것은 별문제가 안될것이다。

◇謝肉祭의 거대한 광대 한창 진행중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사육제에서 거대한 광대가 23일 노상에서 악대들의 음악에 맞춰 익살스런 춤을 춰보이고 있다。【리오데자네이로23日AP=聯】

海外토픽

性행위를 生放送

★파리에 登場…남녀實演

낯선남녀가 벌이는 性행위를 생방송하는 방송국이 파리에 등장했다. 「카본14라디오방송국」이라는게 그것。

이 방송국은 지난 일요일 새벽 디스크자키 미셸·피츠빈의 실황해설을 곁들여 첫 섹스방송을 내보냈다。청취자들은 섬뜩해 男女들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들을수 있었다。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에 나오시면 멋있는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를 찾는 미셸·피츠빈의 호소다。

그는 지난 토요일 밤 수십명의 남자지원자중에서 3명, 이들의 섹스파트너로는 28세의 프랑스와여인을선발했다。

3명의 남자중 1명을 선택하게 되어있는 프랑스와여인은 첫번째 소개받은사람과 인연을 맺게됐다. 이들은 과거에 전혀 만나본 경험이 없는 첫 대면의 사이。

이들의 대화는 곧바로 자연스러워졌다。

『성도착자가 아니면 어떤 남자건 다좋다』는게 프랑스와의 말이다。

피츠빈은 청취자를위해 男女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다。

프랑스에 사회당정권이 들어선후 방송규제가 완화되자 파리엔 소위 「자유방송」으로 불리는 이같은 방송국이 늘어나고 있다。【파리=AP】

桃色物 회람禁止

★北京日報

北京日報는 23일 도색영화와 책을 돌려보거나 이를 서로 복사하다가 들통난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이같은 추잡스러운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엄중히 경고。

이 신문은 포르노영화와 책을 돌려본 이들이야말로 사회를 좀먹고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장본인들이라고 규탄했다는것。【北京=共】

✡ 특별봉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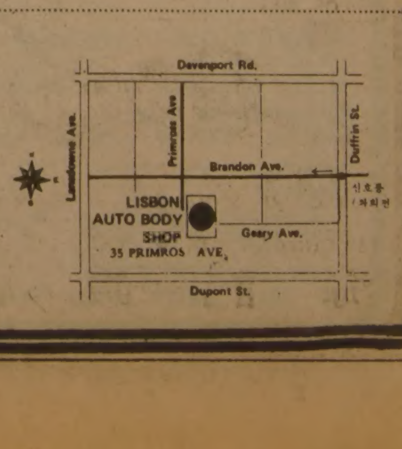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 유능한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LISBON Auto Collision Inc.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5>

3選改憲 ②

기나긴 여름…7·29議總 18시간

근7개월동안 「改憲을할것인가」 「안할것인가」로 政局이 술렁이던 1969년7월중순 어느날 하오。무거운 靜寂에 잠겨있는 청와대 집무실에서는 깊은고민에 잠긴 朴正熙 대통령이 창밖의 北岳으로 시선을 돌린채 담배만을 피우고있었다。

대통령앞에서는 某측근이 근1시간이 넘게 무엇인가 열심히 進言을했다。朴 대통령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하자 이측근은 눈물을 흘리면서 懇願을했다。

『…더이상 주저하실게 없읍니다。3選출마는 곧 救國입니다。각하의 남은 임기를 걸고 국민에게 可否의 결정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대목에 朴대통령은 잠시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며칠후 朴대통령은 원고지25장에 국민에게 발표할 談話文의 草案을 잡았고 담화문이 완성되자 24일 상·하오에 걸쳐 공화당의 尹致暎의장서리 白南檍정책위의장 金成坤재정위원장 金澤壽총무 丁一權국무총리 金炯旭정보부장 李厚洛비서실장 蔡南都대변인등을 청와대로 불러 이를 回覽시켰다。

이자리서 朴 대통령의「改憲意中」을 처음 알게된 인사들은 한결같이 놀라 한동안 말을못했다。모임이끝날무렵 朴 대통령은 李비서실장에게 文脈을 다듬을것을、蔡대변인에게는 원고지에쓴 原文을 영구히보존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25일) 朴 대통령은 전국의 방송망을통해『改憲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면 그것이 곧 나와 이정부에대한 신임으로간주할것이며 否決될경우 불신임으로 보고 즉각 물러나겠다』는 요지의 改憲선건7개항을 제시했다。

'70년代 政局을 격동과혼란으로몰아넣고 憲政史에 또하나의 말썽과 是非와 문제점을 남겼던 이른바 3選改憲추진의 신호탄이 올려진것이다。

3選개헌논의가 언제부터 어떤사람들에의해 추진되었는가하는 淵源을 정확하게 가리기에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것같다。

그러나 개헌논의는 朴 대통령의 2차임기가 되는67년 제6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나온것만은 확실하다。대통령선거가 朴 대통령의 壓勝으로 끝난후 청와대 고위측근과 공화당의 일부 간부들 사이에는 以心傳心으로 朴 대통령이 3選을 할수있는 문제를 극비리에 논의하기 시작했다。

改憲의 명분과 이유로는 ①朴대통령이 2期로물러서기에는 아직 의욕적인 한창나이라는것 ②자립경제 국토방위 국토건설등 조국근대화사업을 중단시킬수없다는것 ③北傀와 맞설수있는 리더십을 가졌다는것 ④派爭과 內紛으로 病든 야당에게 정권을 물려줄경우 4·19직후와같은 혼란이온다는것 ⑤공화당안에 朴 대통령을 이을만한 후계자가 없다는 것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의모습> 3選改憲이 發議—국회통과—국민투표라는 절차를거치기까지 공화당은舊主流의원들의 거센반대로 陣痛을겪었다。사진은 국회에서 變則처리하기앞서 9월8일새벽에열린 공화당의 긴급의원총회。오른쪽에尹致暎의장서리 金澤壽총무가、의석쪽에는 金成坤 張坰淳 李秉禧 金昌槿 崔熙松의원들의 얼굴이보인다。

泣訴진언·反撥속셈은 딴곳에

支持로변한 보스에"背信"울분

이들은 야당의 집권능력부족과 국방및 근대화사업등도 큰이유지만 무엇보다도 집권당내의 뿌리깊은 親金 反金系간의 後繼를 둘러싼 견제와 내분이 적지않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有力하다。

그렇지않아도 改憲논의를 공식화한 朴 대통령의 7·25담화가 발표되자 야당 (新民黨) 과 在野、학생들의 반발도 거셌지만 공화당역시 이를 놓고 소용돌이에 빠지게된것도 바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극비리에 몇몇 실력자들이 귀속말로나누던 改憲논의가 政街에 흘러나오기는 6·8總選(7代국회)이 실시되기 직전부터였다。

당시 政街에서는『共和黨이 3선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는 소문과 함께 부정선거시비가 잇달았고 사실 共和黨은 6·8총선에서 총의석 1백75석중 改憲線인 3분의2가 넘는 1백29명의 당선자를 내기도했다。

67년의 총선직후 黨內非主流가주동이 된것으로 지목된 이 3選개헌논의는 黨의장이던 金鍾泌씨를 朴 대통령의 후계자로 추천하고 있던 親金·舊主流系의 신경을 곤두세우기에 족했고 金씨 자신도 충격을받은듯 68년초 기자회견에서『나는 朴 대통령이「내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헌법의 한자도 안고치겠다」고 한말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후 金씨가 68년5월 福祉會사건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개헌추진세력이 당권을 장악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68년12월 尹致暎공화당의장서리는『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할수있지 않느냐』고 처음으로 改憲문제에 관해 韻을떼었고 69년1월초부터 尹의장서리、吉在號사무총장등이 잇달아 개헌관측기구를띄우기시작했다。

朴 대통령도 1월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치지 않겠다』라는 많은 여운이담긴 말을했고 이에 대해 야당인 新民黨은 민감한 반응을보이며『黨運을걸고 저지하겠다』(俞鎭午총재)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양성화기미를 보이던 개헌론은 69년2월3일 열린 共和黨의원총회에서 요란한 贊反시비와함께 朴대통령의 指示로 잠시 유보되었으나 舊主流는 勢를 과시하기위해 신민당이 제출한 權五柄 문교장관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4·8抗命」을 일으켰다。改憲의 싹을꺾기위해 일으킨「4·8파동」은 급기야 芮春浩、楊淳植、朴鍾泰、鄭泰成、金達洙의원등 舊主流 맹장들의 제명을 가져왔고 舊主流는 더욱 약화됐다。이로인해 殘存해있던 20여명의 舊主流가 숨을 죽이고 있는틈을타 尹당의장서리가 5월8일 3選改憲추진의사를 다시 밝혔다。

朴대통령도 이와함께 舊主流무마를 위해 改憲派인 吉在號총장을 퇴진시키고 吳致成의원을 임명했다。

어쨌든 체제를 정비한 改憲추진세력은 猛躍을 개시했고 朴 대통령이「7·25담화」를 통해 改憲의사를 밝히면서『여당은 빠른시일안에 改憲案을 발의하라』고 천명하기에 이른것이다。

朴 대통령은 3選改憲을 결심하기까지 무척 苦心했다는게 당시 청와대측근들의 傳言이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朴 대통령은『과연 약속대로 2期만을 마치고 물러날것인가、욕을먹더라도 벌여놓은 민족중흥과업을 마무리지을것인가』고 苦心하는동안 몇몇고위측근과 일부 공화당간부의『최소한 反撥속의 成熟』壯談과 끈덕진 泣訴進言에 결국 결심을하게됐다는것이다。

막상 개헌의 주사위가 朴 대통령에 의해 던져지자 공화당은 야당인 신민당보다 당내舊主流에 더힘을쏟아야했다。

국회에서 院內改憲線확보를 위해 朴 대통령이 가장먼저 시작한것이 舊主流의 보스로서 당시 政界은퇴상태에있던 金鍾泌씨를 설득하는 것이었다。朴 대통령은「7·25담화」를 발표한 당일저녁 李厚洛비서실장을 시켜 金씨를 청와대로 불렀다。이때 朴 대통령은『여러가지로 괴로왔으나 끝내 결단을 내렸다。들리는 말로는 상당한 일부 공화당의원들 (親金系20여명) 이 반대한다는데 반대한다면 제명을 해줄터이니 명단을 내라』고말했다。

金씨는 朴대통령의 얘기를 듣고『각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없읍니다』라고 말한것으로알려졌다。

7월27일밤 靑丘洞 金씨의자택에는 楊淳植 芮春浩 金龍泰의원등 공화당에서 제명된 舊主流핵심이 모였다。한동안 말없이 술만을마시고 있던 金씨는『이쯤되면… 협력할수밖에 없지않는가』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金씨의 말을듣자마자 이들은『당신을 따라다니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와서 이럴수가 있는가』『배신했다』는 통곡과함께 재떨이가 부서지기도했다。이들에 대한 1차설득에 실패한 金씨는 다음날 鄭求瑛、金貞烈、崔熙松、金宇榮의원등 10여명을만나 설득을펴기시작했다。

그후 金씨는 요정、골프장、호텔등을 가리지않고 그림자처럼 나타나 舊主流들을 설득、楊淳植 芮春浩의원만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쪽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朴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朴 대통령은 당내 舊主流와 제명한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설득을 시작했다。

靑瓦臺대변인을 지낸 K씨 (6·9代의원) 의 얘기。『朴대통령은 보통 점심식사에서 의원들을 만났어요。그럴때 朴 대통령은 항상 어깨를 두드리며「자네 나한테 불만이 있다지、왜그래」라고 말했어요。그러면 그의원은「여론이 이러하니 대책을 세우자는 뜻입니다」정도밖에 말하지 않았어요。1대1로 만난의원은 楊淳植、金龍泰의원정도였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만났어요。흔히 朴 대통령앞에서 직접반대의사를 밝혔다고들 하지만 천만의말씀입니다。그때 朴 대통령앞에서는「각하、안됩니다」고 말한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신민당의원이었던 L씨도『朴 대통령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밝힌 사람이 있었다면 朴 대통령이 개헌의 꿈도 꾸지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이에대해 K씨 (6·9代의원) 는『朴 대통령이 달래놓으면 꼭 李비서실장、金炯旭정보부장이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에요。일보 누그러졌다 2보 강경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K씨는 또『舊主流가 개헌을 반대한 이유는 JP를 다음 후계자로 옹립、자신들이 실권을 잡자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또 개헌파가 그렇게 집요하게 추진한것은 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JP가 大權을 잡으면 자신들이 설땅이 없다고 본때문인것같아요』라고 당시상황을 설명하고있다。여하튼 7·25담화후 改憲파동의 絕頂을 이룬 7·29공화당의 迎賓館의원총회직전까지 개헌안에 서명한 의원은 공화86 (1백9명) 政友會11명 (14명) 등 97명으로 개헌선에 꼭 20명이 모자랐다。

그러나 이 마지노 선은 7·29議總을 계기로 무너졌다。

7월29일 상오10시30분부터 30일 상오4시20분까지 18시간동안 계속된 공화당의총은 우리 정당사에 길이 기억될 길고 무더운 한여름의 낮과 밤이었다。

迎賓館 (현 新羅호텔 구내) 의총으로 불리는 이날 회의에서「黨의

일부선 "朴大統領 面前에서 反對한 사람없다"고도

生死」를 건 개헌문제가 공식 상정된 것이다。尹致暎、金成坤、金容珣、白南檍의원등은 찬성발언을、鄭求瑛、金宇榮、申允昌、吳學鎭의원등은 반대의 소신을 밝혔다。반대파의 원로인 鄭求瑛의원은『몸이 아파 더 말을 않겠다。

개헌문제의 찬반에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의미있는 말을 던진후 퇴장해버렸다。30여명이 나서 어지간히 찬반소신이 쏟아진밤10시30분께부터 당간부들은 설득을 시작했고 金在淳대변인이 미리 준비한 결의문을 낭독하려하자 李萬燮의원이 뛰어나왔다。李의원은『개헌안에 서명하지 않은 20여명중의 한사람으로 정부·여당의 주요지개편등 5개항을 의원총회 이름으로 결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찬성할수없다』고 말했다。李의원의 발언을계기로 장내는 갑자기 긴장되기시작、『국회의원이「外的작용」으로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등의 불만과함께 책상을치고 고함이터져나오기시작했다。사정이 급변하자 金成坤의원은 張炯淳부의장과함께 밤11시30분 의총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위해 靑瓦臺로 향했다。새벽1시께 張부의장이 먼저돌아와『뜻을전했다。그조치에 대해서는 나를믿어달라』고 말했다。

金澤壽총무는 張부의장의 보고가 끝나자『자 이제는 결의문을 채택할터이니 만장일치 통과의 뜻으로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한역사의 고비를 이루는 개헌안、결의 박수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새벽3시께 당무회의가 마련한 개헌안 내용에 대한 축조심의가 끝나자 金총무는『이제까지 받은 서명은 白紙化하고 새로 서명을 받겠다』고말해 서명이시작됐지만 舊主流의원들은 자기들의 차례가 다가오자 석고상처럼 얼굴이 굳어졌다。

金총무、吳총장등의 권유로 舊주류가 서명을 하기직전 李承春의원이 발언대로 나가『개헌발의서명과 개헌찬성은 별개의문제이며 사인을 했지만 부표를 던질 시간은 있다』고 선언하자 장내는 다시 숙연해졌다。

이를 신호로 申允昌、金龍泰、張榮淳、金成熺、尹天柱、金宇榮、吳學鎭의원등이 차례로 나서『정치를 그만두겠다』『개헌반대의 합리성을 이해하게 해달라』라는 요지의 발언을 계속한후 서명에응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 참석했던 鄭求瑛의원은 끝내 서명을 하지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표를 행사、朴 대통령으로부터 후에 私信을 통해『당론에 따르든가、탈당하든가 擇一하라』는 종용을 받기까지했다。【特別取材班】

그때 그事件 그內幕

워커힐·새나라車 疑惑사건

63년 4월8일。

서울城東區廣壯洞山62번지。한강을 굽어보며 선「歡樂의 궁전」워커힐의 밤은 귀에 익은 트럼피트의 연주로 화려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밤에 바로 의혹으로 얼룩진 워커힐의 개관식이 열린 것이다。개관식은 8만달러의 개런티로 초청된 루이·암스트롱과 그의 악단 13명이「하이 소사이어티 칼립프스」「성자가 오시네」등 히트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트럼피트의 선율로도 관객의 흥을 돋우지는 못했다。바로 그즈음「동양 제1의 위락장」워커힐 건설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국민들의 의혹의 눈총이 따가왔기 때문이다。

워커힐이 들어선 땅 (18만여평) 은 제1공화국의 대통령 李承晩박사의 별장이 있었던 자리이기도하여 정치권력과의 숙명적인 因果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었던것이나 다름없었다。

워커힐건설은 5·16 이 나던 그해 9월께부터 구상되었다。당시 실력자였던 金鍾泌씨는 外資획득의 방안으로 관광산업에 착안、동양최대의 관광지로 워커힐 건설안을 마련했다。한달후 石正善(예비역대령) C·P·K씨등을 발기인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조속한 건설』을 위해 金씨 직계 林炳柱씨 (당시 중령) 를건설사무소장에、劉在命씨를 경리과장에 앉혔다。

11월4일엔 정보부장、교통부장관、재무부장관、경제기획원부원장、서울특별시장、韓電사장、산업은행총재、林炳柱씨등이 연석회의를 열었다。건설위원의 염출방안을 마련하기위해서였다。소요자금은 65억환 (화폐개혁후 6억5천만원)。정부와 정부관리업체의 출자와 정부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조달키로했다。건설의 필요성에대해 모두 공감을 했을뿐 누구의 異議도 없었다。

따라서 자금은 정부예산에서 16억환、산업은행에서 21억환、주택공사에서 12억환、서울시에서 6억환、한전에서 1억환을각각 염출키로 결정됐다。

解凍을 기다려 다음해 2월25일 기공되었다。만사가 막힘이 없이 一瀉千里였다。

워커힐 대지 일부엔 수용령이 발동됐다。林炳柱씨의 요청과 주변사람들의 주선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소집되었고 별다른 토론없이 승인이 났다。

따라서 토착민 金卜成씨등 14명은 당시 싯가 2천8백39만환짜리토지 4만1천여평을 거의 5분의1가격인 4백40만환에 넘기고 쫓겨났다。

成殷出씨등 다른 토착민들은『땅을 돋지않으면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수용령에 이어 건설부와 교통부의 기술직원과 구형무소 복역수및 현역 기술요원등 연인원 2만4천여명이 부당히 동원됐고 교통부등 소유의 불도저 몇대등 중장비가 동원되기까지 했다。

워커힐이 모습을 갖춰가며 높이 솟아오를수록 국민들사이엔 의혹의 골짜기가 깊어가고 있었다。外貨부족으로 경제위기가 감도는 판에 무슨 돈으로 외국자재는 들여오는가、공사자금이 다른곳에 유용되고 있다는데…자재의 일부가 共和黨舍로 쓰여질 건물의 보수용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풍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풍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賂物·流用에 가짜 俸給도

證券파동·빠찡꼬 소동과함께 4大 新惡으로 물의

車수입에 뒷去來說 파다

林炳柱·劉在命씨는 공사자금으로 제일은행에서 융자받은 3천9백70만원 (舊貨 3억6천7백만환) 중 2백만원을 丁海稷씨 (당시 워커힐 고문) 가 경영하는 동해장유공장의 운영자금으로 대여、유용함으로써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한 不正이 배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 보관중인 입찰보증금 3만3천원이 행방불명되자 퇴직사원이 계속출근하는것으로 꾸며 봉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부당지출했다。

워커힐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을때 공화당 창당준비위원 石正善씨의 부탁을 받은 그들은 共和黨舍로 예정하고있는 서울역앞 전 세브란스병원 건물을 보수하기위해 워커힐의 건축자재를 빼돌렸다。

그무렵은 共和黨의 사전조직도 매듭단계였고 黨舍로서 세브란스병원건물을 고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石씨의 부탁에따라『共和黨창당에 도움을 주기위해』4차례에 걸쳐 워커힐의 건축자재 27개 품목 1백34만5천6백72원 (당시 시중가격) 어치를 운반해 주었다。

그들의 有罪기록은 그뿐이 아니다。기밀비 접대비 잡비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워커힐의 장교호텔 골조공사、마감공사、한국민속관공사、오물처리시설등 6천만원공사를 맡은 三煥企業에 대해『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李昌浩씨 (三煥기업전무) 를 통해 1백8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63년7월3일 구형공판이 열렸다。증인으로 나선 石씨는 뇌물로 6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舊惡시대엔 큰공사가있으면 1~2할을 유용 착복했는데 5억6천만원짜리 거대한 공사에서 단돈 6만원이라는 뇌물은 舊惡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방청석의 失笑를 자아내기도 했다。

부정이야 어쨌든、국민들의 의혹이야어쨌든、「한국의 라스베이가스」워커힐은 계획대로 62년12월27일 준공되었다。朴의장、金내각수반、金씨등이 참석한 화려하고 삼엄한 준공식이었다。그러나 4개월가까이 늦어진 개관식에는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개관식 석달뒤 선고공판은 林炳柱피고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18만원을、丁海稷피고에겐 징역8월을、劉在命、李昌浩피고에겐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美의회 증언록에도『워커힐 건설공사는 수백만달러의 부정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不正을 잉태한채 건설중인 워커힐。(62년5월에 찍은 사진)

◇의혹을 안고 釜山에 상륙한 日產 블루버드 승용차群。새나라 차라는 이름으로 서울거리에 등장했다。

워커힐의 기초공사가 한창일무렵인 62년 4월、블루 버드란는 낯설은이름의 날씬한 日製승용차가 서울 거리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1차연도사업이 착수되어 도처에서 소리가 요란했고「革命한국」을 과시하기위한 각종행사가 잇달아 열리고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관광붐이 일고 있었다。이같은 붐을 타고 블루버드 4백대가 새나라차 (1천2백cc) 라는 이름으로 시발차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용 1백50대、일반관광용2백50대로 모두 관광용이라는 딱지가 붙여있었다。물론 관세도 물지않는 특혜가 주어졌다。그러나 이들 관광용차는 곧 일반택시로 모습이 바뀌었고 30~40만원하던 시발차는 6~7만원선으로 폭락、차주들의 피해를 강요했다。블루버드 바퀴자국은 의혹으로 차갔다。

유류사정、교통행정、국내자동차공업보호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차의 도입을 억제해오던 혁명정부가 고시도 없이 전격적으로 새나라자동차설립을 허가하고、日產자동차와 기술제약을체결케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은 독점화 되었다。더우기 歐美의 우수한 기술을 제처놓고 日本車를 선택한것도 정치적인 복선의 냄새가짙었다。

첫 4백대에 이어 다음해엔 3백50대가 구입됨으로써 2백27만6천달러가 소비되었다。

새나라차의 의혹은『韓·日관계에 모종의 흉계』으로 발전되었다。특히 그무렵 블루버드를 판日產은『서울모터지에 25층짜리 자동차회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이건물은 국교가 정상화되면「日本文化센터」로 바뀔 것」이라는 풍문이 자자했다。

美의회의 기록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적혀있다。K씨는『61년11월부터 62년2월사이에 日本으로 자금통로를 열기위해 이스라엘계 회사인 아이젠버그를 활용했고 그를 통해 日本의 대기업가들과 간접적인 접촉을 가졌다。이어 日本에서 자동차를 수입케 되었으며 그로해서 큰 收入이 따랐다』고 했다。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블루버드가 낸 바퀴자국에 남은 의혹의 씨가 한참 자라고있는 62년10월26일、돌연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이날의 회의에선 회전당구 (빠찡꼬) 遊技시설의 폐지조치를 의결했다。射倖心조장 시비속에 눈총을 받아가며 시설을 했던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회전당구는 5·16 이전에도 이미 도입되었던 것이나 그후 혁명정부가 禁輸품목으로 막아놓고도『재일교포의 재산반입명목으로 새로 8백40대를 수입허가』한 데서 의혹은 비롯되었다。재일교포의 귀국이삿짐에 싸여 馬山港으로 들어온「빠찡꼬」는 결국 밀수로『판정』소각되었지만 의혹의 또다른 가닥은 한창 재미를 볼만한때에 갑작스럽게 폐쇄조치한데 있었다。

정부가 3개월 시한부로 營業기간을두었다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하니 기존 34개 업소는 8천만원의 시설비및 선불세금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정부에 대해 보상 청구소동을 빚기까지 했다。

이같이 證券파동을 비롯한 워커힐、새나라자동차、회전당구등 4대의혹사건은 정치권력과 共和黨 사전조직틀들이 깊게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다는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중 證券파동은 가장 충격이 컸던 의혹사건으로、워커힐、새나라자동차등은 권력의 이권개입에서 비롯된 不正사건으로、舊惡을 일소하겠다던 혁명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정치파동을 심화시킨 新惡으로 기록된다。【經濟部】

海記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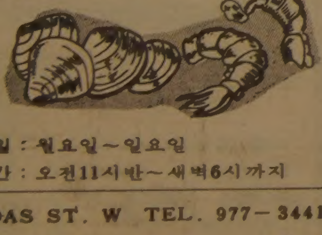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 국 일 보 발 송 부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세트마다 게임 뒤집어
現代、韓一合纖 제압

◇블로킹 突破 現代-韓一合纖의 첫경기서 現代의 金松姸이 강스파이크로 韓一合纖 朴美香의 단독블로킹을 깨뜨리고있다.

油公 邊京子·吳世惠 활약
白明善 믿는 후지 밀어내
3—0

實業배구 開幕

82년도 실업배구시즌 첫경기인 제1차실업연맹전이 여자10개팀과 남자3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24일 장충체육관에서 개막, 9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첫날 여자A조경기에서 現代는 제2·3세트막판 韓一合纖에 13점을 먼저 허용하는 위기를 金英淑·金貞順등의 분전으로 극복하고 1시간20분만에 스트레이트로 승리했다. B조의 石油公社는 주장 邊京子와 吳世惠의 활약에 힘입어 白明善이 부진한 후지필름을 3-0으로 물리쳤다. 후지는 白明善이 상대블로킹에 봉쇄당한데다 후속공격수들이 없어 활로를 열지 못했다. 韓一合纖은 제2세트서 13-7, 마지막제3세트서 13-11로 앞서며 강호現代를몰아붙여 지난해 최대의 돌풍을 몰고왔던 팀 이미지를 되살리는듯 했으나 강타력부족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첫세트를 너무 손쉽게 빼앗겼던 韓一은 제2세트서 權美助、신입생 朴美香등 신진들의 공수활약에 힘입어13-7까지 리드했다.

지난해말부터 하위팀의 불명예를씻고 상위로 도약했던 韓一은 강호現代와의 대전서도 그 돌풍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듯했으나 權美助의 공격미스로 1점을 잃고부터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現代는 단신 南明禮가 化京蓮의 중앙돌파를 블로킹으로 잡아 추격의 실마리를 풀더니 金貞順의 공·수분전과 金英淑의 활약에힘입어 연속7득점, 순식간에 전세를 뒤엎고 15-13으로 전세를 빼앗았다.

韓一이 제2세트서의 고비를 무사히넘겼더라면 또다른양상이 벌어질수도있었던 아쉬운 순간이었다.

現代는 마지막 세트서 6-8로 뒤지다가 그동안 부진으로 벤치에만 앉았던 李炳華가 오랜만에 레프트강타를 터뜨리고 金英淑의 파이팅 넘친 활약으로 10-8로 또다시 리드했다.

그러나 韓一은 權美助 李明子의 좌우강타가 불을뿜고 朴美香도 공격에 가세, 또다시 13-11로 역전리드.

現代는 이마지막고비를 金英淑의 라이트강타로구해 듀스끝에 韓一은 지난해 팬들을 놀라게했던 끈질긴수비력이 다소떨어진데다 서브·리시브불안으로 다양한 콤비플레이를 펴지못했다. 반면 現代는좌우오픈공격일변도의전력에서A·B퀵·플레이등다양한트릭플레이를구사했다.

◇첫날전적

▲여자A조

현대 3 (16-14, 15-13, 15-7) 0 한일합섬

▲동B조

석유공사 3 (15-5, 15-7, 15-8) 0 후지필름

金振海·朴明淑 회전 독무대
스키選手權
朴載赫·洪仁基 실격

【龍平=聯】 제36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 최종일 회전경기에서 金振海(단국대)와 李明淑(국민대)이 또다시 남녀부 우승을 차지, 각각2관왕과 3관왕이 됐다. 이날 남자회전경기에서 金振海는 1분58초75의 기록으로 전날 대회전에 이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기대했던 朴載赫(강릉농공)과 洪仁基(국민대)등은 경기도중넘어져실격했다.

여자부회전에서는 朴明淑이 2분03초48의 기록으로 1위를차지, 활강 대회전에 이어 여자부 알파인3관왕이됐다.

노르딕남자 40km계주에서는 江陵商이 2시간04분56초로우승했다.

◇최종일기록 (종목별1위)

▲회전(1천m)=金振海(단국대)1분58초75 ▲동여자(6백m)=朴明淑(국민대)2분03초48 ▲노르딕남자40km계주=강릉상 2시간04분56초 ▲동여자15km계주=경북여상 1시간21분35초

세계 跆拳道 연맹에
日·波蘭·헝가리 가입
世界대회 내일 에콰도르서

【구아야길(에콰도르)=閔炳宅특파원】세계태권도연맹(WTF)은 24일(한국시간)이곳의 오로베르데 호텔에서열린총회에서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83년 덴마크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폴란드 헝가리 키프로스 버진아일랜드 일본등5개국이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했는데 공산국가들의 가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WTF회원국은 107개로 늘어났다.

【구아야길(에콰도르)=閔炳宅특파원】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24일(韓國시간25일새벽) 종주국인 韓國을비롯한 52개국 3백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가운데 이곳 콜로세오체육관에서 개막, 열전 4일에 돌입했다.

종합 5연패를 노리고있는 韓國선수단은 金敬元단장 인솔로 지난22일 이곳에 도착, 현지적응훈련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특히 이번대해에는 헝가리 폴란드등 東歐공산 국가들도 처음으로 출전했다.

金雲龍세계태권도연맹총재도 22일 이곳에 도착, 韓國선수단을 격려하고 있으며 다른 참가국 선수단도 일일이 방문하여 선전을 당부했다.

이번대회 참가선수단가운데 스웨덴은 지난 12일 가장 먼저 도착,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모든 참가국들은 대회하루전날까지 모두도착했다. 특히 태권도가 오는 88년 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된바있어 東歐공산권들까지도 이번대회에 큰관심을 가지고있는데 폴란드는 2명, 헝가리는 3명의 선수를 파견하고있다.

韓國은 이번대회에서 전체급우승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체력이좋은 유럽선수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낸것 같다.

아마복싱 代表선발
柳在珉·文成吉 승승장구
중학생 金容相도 판정승

제3회 세계아마복싱 선수권대회파견 한국대표 2차선발전 각체급준결승경기가 24일 문화체육관서 속행, 결승전 진출선수를 가려냈다.

이날 플라이급 준결승전서 柳在珉(수경사)는 강호 楊弘圭(상원체)를 예리한 스트레이트 펀치로 공략한끝에 판정승, 金成吉(한국체대)과 결승전을 벌이게되었다.

한편 루지의 文成吉(목포대)은 朴炯沃(인천금강체)과대결, 1라운드서는 열세였으나 2라운드종료직전 朴의 턱에 강한 라이트스트레이트를 작렬시켜 녹다운을 빼앗은후 게임의 주도권을잡고 밀어붙여 일방적인 판정승을 거두었다. 文은 결승전서 申昌錫(원주복싱)과 대결한다.

올해 전남체고에 입학예정인 신예金容相은 라이트플라이급 준결승전서 李範燁(한국화약)에 판정승, 결승전에 올랐다.

忠武市 동계轉訓地로 각광
18개팀모여 南國 기후만끽

【忠武=聯】忠武가 동계시즌에 축구선수들의 전지강화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실업팀을 비롯한 대학·중고교등 전국 명문축구팀들이 전지훈련을위해 남해안의 항구도시 忠武로 찾아들고있다.

올해도 서울信託銀行과 嶺南大등 8개실업및 대학팀이 忠武에 내려와 전지훈련을끝냈거나 계속하고있고 中東高·永登浦工·利川中등 10개중고팀도 최소 10일에서 1개월간씩 기량을 연마하고 돌아갔다.

아나운서 高麗珍씨
볼링 최우수선수

볼링챔피언선발전결승전이 23일 東大門라이프볼링센터에서 열려 인기아나운서인 고려진씨(여)와 최성환씨(남)가 각각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서울시볼링협회(회장 金鳳燁씨) 창립기념으로 마련된 이대회에는 예선전을 거쳐 결승에오른 40명(남25명·여15명)이 경기를 벌여 최우수선수를 비롯 남녀 각각 8명씩 16명이선발됐는데 고려진씨등 최우수선수에게는 20만원의 격려금도 지급됐다.

東亞建設 탁구팀
日 明治生命대파

日本明治生命 여자 탁구단이 친선경기차 내한, 24일東亞建設과의 1차전에서 5-0으로 완패했다.

◇1차전적

東亞建設 5-0 明治生命

金泰蘭 2-0 山下惠子

辛庚淑 2-0 福田秋枝

朴殷珠·辛庚淑 2-0 川野良子·山下海子

朴殷珠 2-0 川野良子

金明子 2-0 古澤菊代

野球대표팀 귀국

오는 9월 서울의 제27회 세계 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아마야구대표팀이 25일하오5시 臺灣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다. 대표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복귀, 시즌 오픈에 참가한후 대회개막전까지 2~3차의 합동훈련을 더가질 계획이다.

뉴욕跆拳道협회 趙誠澤사무국장

◇趙사무국장

跆拳道 올림픽채택돼야
開天節엔 美國순회경기도 개최
쿵후映畫같은 活동 바람직

『88년 서울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실망했읍니다. 그러나 5월 로마에서 열릴 IOC총회에서 어떤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읍니까. 전세계의 모든 태권도인들이 단합하면 보다 좋은 소식이 들릴걸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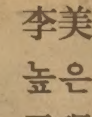
오랜만에 모국에 나들이온 뉴욕태권도협회 趙誠澤사무국장은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누락에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새로운해결책이 나올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趙사무국장에 의하면 뉴욕을 비롯한 全美洲의 태권도인들은 84년 LA올림픽때 한국대표선수단의 뒷바라지를 위해 어느때보다 단합된 힘을 모으고있다는 것. 특히 뉴욕거주 태권도사범들은 88올림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벌써부터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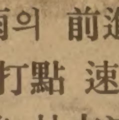
이밖에도 뉴욕태권도 협회는 매년4월께는 매디슨스퀘어 가든에서 全美洲대회를 개최하고 10월3일 개천절에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태권도시범을 벌이는등 한국을 소개하는데도 큰몫을 하고있다. 올 9월에는 교포2세들을 대상으로한 태권도대회를 개최, 모국애를 심는것과 동시에 교민사회 단합도 도모할예정이다.

趙사무국장은 『태권도가 국제화하는데는 성공했으나 美國의 경우 日本의 가라데、中國의 쿵후등에 비해 홍보활동이 미약한것같다』며 태권도가 더욱 세계속으로 파고들게 하기위해서는 순회시범경기의 활성화와 태권도의 영화화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美國에서 활약중인 몇몇한국인 지도자들은 美國정부로부터 체육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나 정작 한국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며 태권도인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기를 바랐다.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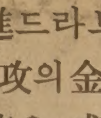
새武器 갖춘 10代 속출
여자부에서 好調…종합卓球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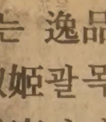
◇金恩喜



◇尹璟美



◇金淑姬



◇李美雨

李美雨의 前進드라이브는 逸品
높은 打點 速攻의 金淑姬괄목
尹璟美·朴末連은 成長度빨라

23일 폐막된 제35회 전국탁구종합선수권대회는 세계정상탈환을 염원하는 한국탁구가 목마르게 찾던 새로운 전형의 무기 金淑姬(17·근화여고)、李美雨(19·제일모직)、그리고 朴末連 尹璟美(이상 서울신탁은행) 등 유망10대들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컸다. 여자부의 경우 국가대표선수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白順愛·李眞淑(대한항공) 金恩喜(제일모직) 申得花(부산코카콜라) 등을 포함한 신진그룹의 활약으로 종합선수권대회의 열기는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백핸드를 페인트·쇼트의 異質라버로 무장한 金淑姬는 테이블에 붙어서서 높은 타점의 양핸드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특히 탁구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빠른 템포의 백핸드 쇼트·커트로 깔려들어오는 金의 기습에 상대선수들은 속수무책이었다.

前국가대표감독 朴聖仁씨(제일모직)는 『세이크·핸드 공격형의 장점을 가장 잘 갖춘 선수다. 타점이 그렇게 높은 선수를 찾기 어렵다. 전형상 한국탁구에 큰 몫을 해낼 재목』이라고 金을 격찬했다.

그러나 朴감독은 金이 양 핸드의 전진속공에만 의존、플레이가 단조로우며 수비에서는 불리한 약점을 안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金淑姬자신이 인정하듯 서브와백핸드는 강한편이다 포핸드의 공격에는 범실이 많았고 수비에도 헛점을 많이 보였다.

승승장구의 金淑姬로서는 선배李美雨에게 당한 결승전서의 3-0패가 그의 大成을 위해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金은 왼손잡이 李美雨의 완강한 백핸드반격에 당황했으며、왼손드라이브에 밀려 승부처를 찾지 못했다.

서울啓星女高시절의 속공위주에서 두꺼운 라버의 탄력을이용한 전진드라이브로 전형을바꾼 李美雨는 金淑姬에 불리하리라던 당초의 예상을 깨뜨리고 힘과 경기운영의 묘로 스피드의 金을 제압했다.

서울信託銀行에 5년만에 단체전우승의 영광을 안겨준 신진 尹璟美 朴末連의 분투는 인상적이었다. 文英女中-서울女商-信託銀行에 이르기까지 함께 손발을 맞춰온 尹璟美와 朴末連은 이번대회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됐던 釜山코카콜라와 저력의 第一毛織A·B팀、무지의 韓一銀行을 모두 제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오른손 펜·홀더의 ·전진속공형인 朴末連은 개인단식서도 4强까지올랐으나 잦은 범실로 왼손 드라이브의 李美雨에게 3-1로 분패、아깝게 탈락했다.

大韓航空의 白順愛와 李眞淑、두신인도 실업초년생으로는 기대이상으로 분투、강적 釜山코카콜라를꺾고 4强까지 진출했으며 대회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남자부에서는 왼손 펜·홀더의 金泰秀(대우중공업) 외에 두드러진 신인들의 활약이 보이지않았으며、오히려 孫城淳(29·대우중공업) 趙東元(23·육군) 등 베테랑들의 활기찬 플레이가 돋보였다.

【方錫鉤기자】

花郞유고와 또비겨
네루컵蹴球 2승해야決選나가

【캘커타(印度) 23日AP=聯】 한국대표축구팀은 23일 이곳서벌어진 제1회 네루골드컵쟁탈 국제축구대회 예선3차전서 유고슬라비아와 1-1로비겨 이제까지 3차례경기서 3무승부(승점3)를 기록、앞으로남은 이탈리아 中共과의경기서 승리해야만 결승전에 오를수있게 되었다.

◇23일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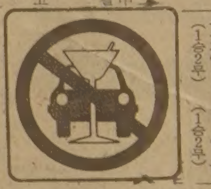
한 국 1 (1-0, 0-1) 1 유 고

(3무) (1무2패)

◇22일전적

우루과이 0-0 중 공

(1승2무) (1승2무)



◇익살스런 선전탑 피카소陶藝展의 익살스런 선전탑이 서울 德壽宮앞에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서울의 봄은 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열리는 국제전시회와 함께 오고 있다. 【朴泰弘기자찍음】

文化短信

好古齋개관紀念展 골동품3백점출품

최근 골동품갤러리를 표방하고 仁寺洞에서 문을연 好古齋(☎9338)는 개관기념으로 지금까지 골동가에서 잘알려지지않은 골동품을 3월5일까지 전시중이다.

이 전시회는 도자기、목기、古書畵、금속品、민속품등 골동전분야에 걸친 3백여점이 출품된다. 이 골동품중에는 지금까지 골동가에서 나온물건중 가장규모가 큰것으로알려진 李朝白磁大壺(높이47·2cm)도 첫선을 보인다.

한국具象彫刻會展

제7회 韓國具象彫刻會展이 26일부터 3월5일까지 미술회관에서 열린다. 姜寬旭 桂敏淑 金炅玉 金光振 金圭星 金錦宇씨등 대체로 30대작가 28명이 참가한다.

宗天스님 禪墨展

승려화가 宗天스님이 3월1일부터 5일까지조계사내불교회관 1층에서 「慈音 禪墨展」을 갖는다.

經濟

金融발전審委구성

재무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한 금융산업發展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심의기관으로 각계인사를 망라한 金融産業發展審議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는 앞으로 ▲금융산업개편을 위한 작업방향설정▲금융산업의 개편을위한 국민여론진작▲금융기구의 개편방안수립▲금융정책의 능률화방안수립등 제등을 심의하게되는데 오는 12월까지 시한부로 설치되며 25일 첫회의를 갖는다.

音盤가격 올라
最高 40%까지

音盤가격이 지난 1년동안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크게 올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0년까지만해도 비교적안정세를 보였던 음반가격이 작년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하여 라이선스레코드의 경우 작년3월에 1천8백원하던 것이 올2월에는 2천5백원선으로 평균 40%나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또한 라이선스카세트테이프도 1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33% 인상됐다.

CP金利도 引下

단자업계는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와 보조를 맞추기위해 CP(신종기업어음)의 인수금리 상한선을 24일부터연23.5%에서 22%로 1.5%포인트인하조정했다.

이에따라 CP의 일반에 대한 매출금리도 현재의 23%에서 21.5%로 떨어지게됐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DA

3월16일까지 BIG SALE
$140 Discount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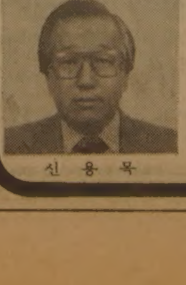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 교인, 학교, 각 단체 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제공함.



신 용 묵

신 용 묵
전화 : B)536—9082,
R)245—7522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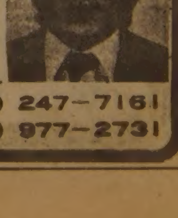
BIG SEVEN무역선물센타

● 우황청심환, 녹용등
●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브레이크 걸린「保護監護」

大法、「대상자苦痛」들어 잇달아 原審파기

"再犯위험성 엄격히해석해야 偶發범행등「常習」으로 못봐"

검찰과 하급법원이 전과자에대한 보호감호처분에서 기준이되는 「상습성」 또는 「재범위험성」을 너무 폭넓게 잡고있는것을 대법원에서 최근 잇달아 제동을 걸고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24일 金漢植피고인 (37·노동·光州市西區西洞162)에 대한 절도및 보호감호청구사건선고공판에서 『보호감호제도가 형사정책상 최후수단으로 만들어진것으로 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이 형벌에 못지않게 중대한점등을 고려할때 상습성인정의 기준이되는 재범의 위험성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光州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金피고인은 지난72년 5월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것을 비롯, 74년5월 상습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기까지 모두 5차례의 절도전과가 있었고 지난해 5월 다시 절도죄로 구속돼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7년이 선고됐었다.

이사건에 대해 1심은 『5회에걸쳐 전과가 있었고 다시 이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징역2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金피고인의 최종전과로인한 형의집행 종료후 5년8개월이나되는 오랜기간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가 다시 한번 범행이 있었다는점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수없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대법원형사부는 지난달 20일 金鍾植피고인(32)에 대한 상습절도및 보호감호청구사건선고공판에서도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전과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평소에 가진 습벽의 발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수차례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우발적인 범죄나 경제적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했다면 상습성을 인정할수없다』고 판시, 징역2년에 보호감호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었다.

해설

위험한前科者 社會서 격리 「상습」규정 명확치않아混線

지난80년 12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제도는 형벌에 의한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사회를보호하기위한 형사정책상의 최후의수단으로 마련됐던것이다.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법조문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상습성의 인정여부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에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었다.

이러한 배경때문에 시행초기에는 검찰에서도 보호감호청구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으나 시일이 가면서 보호감호청구가 부쩍늘어남에따라 판단이 부디어진 감도없지않고 법원에서도 이를 대부분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최근대법원에서 『상습성또는 재범위험성에대한 엄격한 해석』을 검찰과 하급심에 요구하고 나선것이다.

이로미루어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동종유사한 죄에대한 명확한해석도 내릴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이제도가 선진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회정의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단순 논리만으로 모두 해결되는게 아니며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무고한 인권유린은 없어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것이며 기왕에 제도로 정착됐다 해도 그 청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것으로 해석된다. 【[illegible]기자】

防衛兵이 強盜둔갑 歸家길여인에 뭇매

23일 하오10시께 서울西大門區峴底洞 金華아파트81동 입구 계단에서 육군모부대소속 방위병 盧홍근이병(21·金華아파트82동504호)이 집으로 돌아가던 高聖子씨(39·여·81동102호)의 얼굴등을 마구때린뒤 20m아래 계단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 현금3만8천원과 60만원이 예금된 주택은행부금통장을털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盧이병은 방범등이없어 어두운계단 부근에 웅크리고앉아있다가 高씨가 계단을 올라오자 달려들었는데 高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전경에 의해 아파트뒷산에서 붙잡혔다.

電話특수서비스 請約 通話많은 加入者우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7개도시의 전자교환기 가입자에대해 오는4월1일부터 접수와 동시에 실시할 특수서비스의 청약수 및 승낙순위를 확정했다. 통신공사에의하면 특수서비스청약대상자는 전자교환기용 푸시버튼 전화기(MFC)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한하는데 승낙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르고 청약자가 시설수보다 많을때는▲통화량이 많은 가입자▲업무용가입자▲복수가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이에대한접수는각전화국창구 또는 전화 (국번+0000)로 받는다.

특수서비스가 가능한 지역과 대수는 서울9만1천4백40대, 부산 2만70대, 大田5천9백40대, 光州 3천9백60대, 大邱 6천30대, 全州 1천9백80대, 原州 3천9백60대등 모두 13만3천3백30대인데 이들 가입자들에게실시할특수서비스는 ①단축다이얼 ②착신통화전환 ③통화중대기 ④부재중안내등 4개종류다.

용상號 日서拿捕 領海침범 혐의로

【長崎(일본)23日AFP=聯合】 한국어선1척이 일본남부의 항구도시인 나가사끼(長崎)앞바다에서 조업을하던중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이유로 일본해안경비정에 나포됐다.

일본해상보안청은 이 한국어선이 釜山소속 용상호(3.78톤)라고 밝히고 선장 김종세씨는 외국인의 어로활동에관한 일본국내법을 위반한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다.

해상보안청은 용상호가 올해들어 나가사끼현 나가사끼시 서쪽약2㎞해역에서 나포된 6번째의 한국어선이라고 덧붙였다.

中大、副總長制신설

中央大는 부총장제를신설, 24일자로 본교부총장에 의대 閔秉根교수(54) 安城분교부총장에 경상대학 文炳鎭교수(53)를 각각 임명했다.

◇시장바닥인지 人道인지… 떡볶기안주에 잔술을 파는여인, 군밤장수, 책장수, 신발장수…. 鍾路通步道가 행상의 리어카로 메워지고 있다. 어려운 처지의 행상에대한 단속완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미관상으로나 거리를 걷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점상의 대열은 뒷길로 옮겨져야 하지않을까. 【[illegible]기자찍음】

서울大 講義助教制 부활

教授수업돕게、大學院生6백23명 선발

서울大는 24일 수업시간에 교수의 강의와 실험을 돕는 조교의 부족난을 해소하기위해 그동안 폐지됐던 강의조교제(teaching assistant)를 부활, 금년도 대상자6백23명을 대학원생가운데서 선발키로했다.

이숫자는 대학원생 4천9백60명의 13%에 해당된다.

강의조교제는 수업시간에 교수와함께 들어가 강의나실험등 교수의 수업진행을 돕는 조교로 각학과의 일반조교와는 구분되는데 강의조교에게는 매학기마다 수업료전액과 기성회비 70% 감면등 모두 32만원의 장학금 혜택과 매월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훔친트럭 몰고 도망치다 연쇄衝突사고 2명 負傷

서울江西경찰서는 24일 훔친트럭을 몰고가다 교통순시원의 추적을 받게되자 연쇄충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張慶씨(36·주거부정)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張씨는 지난22일 하오 6시10분께 서울江西區內鉢山洞423앞 길에서 자신이 훔친 경기7마2366호 11톤트럭(차주 朴정식·31)을 몰고가다 이차가 도난차량인것을 알아차린 江西경찰서 교통순시원 姜德培씨(37)가 서울8마8689호 트럭(운전사 鄭雲弼·27)을 타고 뒤쫓아가 앞을 가로막으려하자 그대로 들이받아 姜씨와 鄭씨에게 각각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뒤 달아났는데 30분후에는 江西區新亭4洞 서부트럭 터미널앞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경기1아4764호 포니승용차(운전사 이인선·38)를 들이받고 인천쪽으로 달아나다가 서울九老區加里峰洞 롯게이트 앞에서 뒤쫓아간 기동순찰대에 의해 붙잡혔다.

張씨는 지난 14일 하오10시20분께 경기 인천시中區北城洞1街4앞길에서 이트럭을 훔쳤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트럭4대를 훔쳐 5천만원 상당의 부속품을 팔아온 혐의도 받고있다.

여자美兵 대낮被拉 한국인에 醜行당해

美제2사단 ○○부대소속 상병 메리·미첼양은 지난16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한국인괴한 3명에의해 납치당해 외딴집에서 추행을당했다고 24일상오 議政府경찰서에 신고해왔다.

미첼양에 따르면 지난16일 하오 東豆川市로 볼일을보러 가던중 楊州郡隱縣面上牌里 앞길에 이르렀을때 갑자기3명의 괴한이 나타나칼로위협하고 트럭에강제로태워 끌고갔다는것.

이들 괴한들은 어느외딴집에 이르러 미첼양을내려놓고 감금시킨뒤 로프로 묶어놓고 번갈아 추행을했다는것.

미첼양은 감금8일째되는 23일밤 괴한들의감시가 소홀한틈을타 탈출하려다가 이들중 1명에게들켜 격투끝에 때려눕히고 간신히 탈출에성공했다고말했다.

미첼양은 가슴과 발가락등에 심한상처를입고 서울 美軍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고속도로過速「計時」단속

우선 高速버스만、走行시간 체크

치안본부는 고속도로상의 과속운전을 방지하기위해 계시(計時)단속제를도입, 24일부터 실시했다.

계시단속이란 출발지톨게이트에서 통행권에 출발시간을 기재한뒤 도착지 톨게이트에서 도착시간을 확인, 구간별 소요시간표와 대조해과속운전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이다.

경찰은 휴게소에서도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을 경찰관이 점검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같은 계시단속은 1차로 전국의 고속버스를 대상으로실시하며 자동계시기(타임·체크·머신)가 더 마련되는대로 화물차와 승용차등 전차량으로 확대실시할계획이다.

이같은 제도는 선진국의고속도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경우 고속도로에서 경찰순찰차가 있는 구간에서는 지정속도를 지키다가 순찰차가 보이지않는곳에서는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많고이같은과속이 고속도로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있기때문에 취해진것이다.

경찰은 이계시단속결과 시간당 10㎞까지의 과속은 10일간, 11~30㎞는 20일간, 30㎞이상은 1개월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과 함께 2만원씩의 범칙금도 물게할 방침이다.

경찰에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고속도로에서는 모두 3천6백6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모두 2백28명이 숨져 사고건수가 전년에비해 6·9%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과속등 운전자법규위반이 3천5백53건으로 전체의 96·9%였다.

"도장허위 감정"無罪 金炯永씨 陋名 벗어

〈科學搜査硏〉

대법원형사부는24일 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관 金炯永씨 (42·별정직사무관)에 대한 허위감정사건상고심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씨는 지난78년9월 서울민사지법에서 심리중이던 부동산소유권소송에 관련된 사문서의 인장을 허위감정한 혐의로 80년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金씨는 현미경 비교확대기、확대투영기등 최신기구들을 사용、종합적인 실험을한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관정기준에따라 감정한결과를 보고한것인데도 전문시설이 없는 사설감정인들의 감정결과와 다르다해서 이를 허위감정이라할수없다』고 밝히고 金씨의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번대법원에서도 2심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진것이다.

空軍ROTC任官 國防長官賞 禹光夏소위

82학년도 공군ROTC임관식이 24일상오 10시서울항공대학 대강당에서 李喜根공군참모총장등 관계인사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국방부장관상은 禹光夏소위(사진·23·한공대운항과)、공군참모총장상은 趙鎭奎소위(23·한공대항공기계과)가 각각 받았다.

又不實마을금고 國校生등 돈 못찾아

서울 梨泰院1洞

서울龍山區梨泰院1洞 마을금고 (이사장 宋吉燮·48)가 부실운영으로 7천여회원들이번 예치금 2억5천여만원을 돌려주지못해말썽이다.

특히 이들회원중 6천여명은 보광국교어린이들로 새학년을앞두고 학비등에 보태쓰기위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찾으려했으나 마을금고측에서는 『돈이 없다』며 발뺌하고있다는것.

보광국교3년金喜貞양(10)은 『1학년부터 용돈을 아껴지금까지 2만1천원을 저축했는데 내힘으로 학용품을마련하려고 1만원을 찾으려했으나 마을금고 측에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75년 2월에 설립된이 마을금고는 76년11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출자금 15억원을돌파, 대통령 표창까지받았으나 80년4월 당시 전무인 尹明基씨(47)가 예치금 6천3백여만원을 챙겨 달아난후 계속자금 사정이나빠져부실운영을 해왔다.

濟州 풍토병 象皮病 잔존

【西歸浦=聯合】 지난73년이후 퇴치사업을 중단했던 제주도 풍토병인 상피병(象皮病)이 南濟州郡일부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南濟州군보건소가 지난10일부터 17일까지 南濟州郡南元邑泰興3里등 3개지역을 대상으로 상피병 감염검진을 실시한결과 주민 1천6백19명가운데 29명이 양성환자로 나타났다는것.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상피병 감염률이 가장높아 지난64년부터 73년까지 10개년간 정부지원으로 퇴치사업을 펴 감염률이 지난68년20.7%에서 72년 6.4%, 73년 2.5%로 줄어들어 그동안 퇴치사업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10년후인 이번조사에서 泰興3里는 대상자2백78명가운데9명(3.2%) 表善面細花2里는 4백88명중 13명 (2.66%), 城山邑新山里는 8백53명중 7명(0.8%)이 양성환자로 나타나 아직도 상피병으로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상피병은 토고숲모기가 중간매개체인데 이모기에 물리면 초기에는 몸살 두통등 급성증상이 수년간 반복되다가 만성이되면 팔이나 다리가 상피(象皮)모양으로 붓는 말레이지아형으로 일명 사상충증(絲狀虫症) 이라고도 불리며 일단 붓기시작하면 특효약이 없어 완치가 어려운 무서운 병이다.

한국일보 533·2361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수학시험을 잘 치러야할텐데" "넌 학점에 너무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녁식사가 어떠니?" "불고기는 A, 완두콩은 A마이너스 그리고 감자요리는 딱떨어지는 B학점을 주겠어요"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②

〈題字·金蘇東〉

普通學校 시절

아버지나이 級友들과 한班서 공부

5학년땐 京中入試 쓴잔 마시기도

1921년 향교건물을 쓰고있는 咸昌보통학교(4년제)에 입학했다. 장가를 간 학생도 있었고, 상투를 자르고 입학한 학생도 있었다. 연령은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로 父子가 함께 공부하는 것 같았다. 부인이 아기를 업고 교실창문 밖에서 남편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광경도 볼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미루나무 있는 곳으로 몰려가 곰방대에 불을 붙이는 학생이 많았다.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 아니라 1학년생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그래도 향학열은 높았다. 신학문을 머리에 담으려 애썼다.

1학년때의 일이다. 장터에서 5원짜리 지폐를 주웠다. 무네(宗)교장선생께 갖다 주었더니 다음날 조회시간에 나를 불러냈다. 무네교장은 그 돈을 주인을 찾아 돌려주었다며 많은 학생앞에서 모범생이라고 칭찬했다.

무네교장으로부터받은 푸짐한 상품을안고 집에돌아왔다. 사연을 들은 선친은 「군자는 盜泉도 쓰지않는다」라며 그 뜻을 다음과같이 풀었다. 「盜泉이란 이름의 물이라면 군자는 목이 말라도 그물을 먹지않느니라」

盜泉의 물을 먹지않는다는 선친의 교훈은 그후 내마음의 양식이 됐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있다.

1학년때 나는 선친이 사용하던 『속수국어독본』을 놓고 日語공부를 했다. 학교에서는 칠판의 그림을 보고 명사부터 익혀나갔는데 하루는 선생이 이불그림을 그려놓고 무어냐고 물었다. 모두들 「후돈」이라고 대답했다.

선생은 『또 다른말로 아는학생없느냐』고 물었으나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일어서서 『夜具라고도한다』고 대답했더니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일본어 잘하는학생」으로 소문이 났다.

이 무렵 문맹퇴치사업으로 보통학교에 야학을 개설했다.

어느날밤 구경을 갔더니 무네교장이 『너희 마을에서 야학생이 많이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로 『몇명밖에 오지않았다』고 대답했다. 무네교장은 『1학년 학생이 일어를 썩 잘한다』며 칭찬했다. 이러한 소문은 전교에 퍼져나가 상급생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3학년이 됐을 때 학교는 4년제에서 6년제로 승격했다.

◇正三品 通政大夫 中樞院參議를 지낸 祖父 金圭煥. 나는 조부에게 通鑑과 당음등을 배웠다.

5학년때다. 후일교육자로 평생을 바친 金基西와 수석자리 다툼을 벌일때였다.

하루는 일본인 담임선생이 나와 金基西를 불러 『너희 둘은 머리가 좋으니 5학년만 마치고 서울명문고보에 응시해 보라』고 했다. 나는 담임선생의 제의를 받아들여 5학년을 마치고 경성중학(現서울고)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일본인 학생 우선제도에 눌린것이다. 창피하고 분한 마음을 누를 길 없었다. 집에 돌아온날부터 머리를 싸매고 일본어독본과 5·6학년 산수책을 해답까지 암기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했다. 목표는 경성제일고보였다.

당시 경성제일고보는 전국에서 가장 문이 좁은 학교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름도 없는 시골 보통학교 출신이 제일고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것 만큼이나 어려웠다.

한편 나와 라이벌이었던 金基西는 경성사범으로 방향을 정했다.

보통학교때부터 교단에 서는것이 꿈이었던 그는 뜻을 이루었다. 경성사범졸업후 서울사대부속국민교 교장으로 20여년 봉직했고 남산 미동 덕수 중곡 리라국민학교 교장직을 맡는등 우리나라초등교육의 횃불로 평생을 보내고정년퇴직했다.

1927년 봄. 새벽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다. 16살의 시골소년은 어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청운의 꿈을 안고 기차에 올랐다. 한복에 두루마기 차림이었다.

제일고보가 있는 花洞근처 八判洞에 여관을 정하고 학교를 찾아갔다. 양쪽으로 벚나무가 늘어선 교문의 언덕길을 오르면서 제일고보 모자를 쓴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가슴을 설레었다.

필기시험중 일어(국어)와 산수는 만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틀째 구두시험에서 그만 낭패하고 말았다. 면접관인 나까에라선생이 예를 하지않았다고 힐책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경례를 했다고 대답했지만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취미로만든 手藝品 販路가 열리고있다

女性단체들 副業直賣場 잇달아 開設

독산동·安國洞에 登場 큰 人氣

特講받은 會員作品 위탁판매

숙련공製品 못지않은 高級品 많아

여성단체나 신문사등의 문화센터에서 여성들에대한 취미특강이 붐을 이루면서 많은 여성들이 웬만한 공예품 한두가지는 만들수있는 재주를 갖게되었다. 그들중에는 상당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수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상품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란 그리 쉬운일이아니다. 서울YWCA 독산동여성근로회관은 여성들이 만든 수예품·공예품을 전시판매해 주는「Y아씨장」을 열고있고, 한국여성의집은 24일 안국동로터리에 부업직매장을 개설했는데 이전시판매장들은 여성들의 취미열을 부업으로까지 연결시켜줄수 있다는점에서 크게 환영받고있다.

각 여성단체들은 일정기간의 취미특강을 끝낸후 거기서 배운 솜씨로 부업을 하고싶어하는 여성들에게 거래처를 알선해주는등 도움을 주고있다. 요즘 한창 인기인 동양매듭은 1년이상 경험이 있을경우 벽걸이장식 1개에 1만원~2만원의 공전을 받을수 있으며 열심히하면 하루에 2~3개정도 만들수 있다.

퀼트도 1년이상배우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수 있는데 梁点伊손뜨개연구실의 경우 편물강습을 받은후 부업을하는 여성이 10명쯤된다. 이들중에는 스웨터 1장에 4~5만원의 공전을받을만큼 솜씨가 좋은 사람도 많다.

서울YWCA의 독산동여성근로회관은(전화⑱8835) 1년전에 「Y아씨장」을 열고 회원작품과 주변여성들의 작품을 위탁판매하고 있다. 시내에서 멀리떨어진 장소에 있기때문에 판매량이그리 많지는않지만 일부러 먼곳에서 찾아와주는 단골손님이 차츰 늘어날 만큼 짭짤한 솜씨를 인정받고있다.

이곳에 전시된 상품들은 가죽공예품등 다양하며 忠武貨, 양초, 수예품, 바가지, 매듭, 박, 銀製品, 銅製品, 에서 한 할머니가 만들어보낸 누비처네와 繡베개도 나와있다. 젊은사람들 솜씨로는 따를수 없을만큼 누비와 繡가 정교한 처네는 紅·黑의 배색등도 옛女人들의 매운안목을 보여주는데 5만2천원의 정가표가 붙어있다.

『Y아씨장은 여성들이 만든 작품이면 무엇이든 다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사라져가는 바느질솜씨, 繡솜씨등을기리기위해 할머니들이 만드신 골무, 수저집, 베갯모, 누비옷등을 기다리고있지요. 판매수수료는 10%를 받고있고, 또 고객들로부터 주문도 받고있읍니다』

◇서울YWCA독산동 여성근로회관안에 마련된 Y아씨장. 70세의 할머니가 만든 누비처네도 나와있다.

근로여성회관의 邊道潤관장은 주부들이 단기간에익힌 솜씨로는 본격적인 부업을할수없기때문에 이런 상설판매장이 꼭 필요하다고말한다. 숙련 기능공들이 10개, 20개 써 만들어내는 시간에 고작 한두개밖에 만들수없는 초보자들은 일반가게들에 납품해봤자 돈벌이가될수없으며 또 솜씨가 서툴러 팔기도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설판매장에는 재료값이나 건지려는 서툰 주부에서부터 높은 수준에이른 숙련된 주부들까지함께 작품을 내놓고있기 때문에 가격도 크게 차이가나며, 고객들로서는 다양한 수준의 물건들을 골라서 살수있다는 잇점이 있다.

안국동 로터리에 문을 연 한국여성의집 부설부업직매장(전화⑳0811)은 위치가 좋기때문에 좀더많은물건을 팔수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곳역시 취미특강을 거친 회원들의 작품과 일반여성들이 만들어가지고 오는작품을 위탁판매하고있는데 판매수수료는 무료로할 계획이다.

나와있는 상품은 동양매듭(3천원~6만원), 금속공예품(6천원~10만원), 양초(5백원~3만원), 서양매듭(7백원~6만원), 도자기(7백원~6만원), 바가지(1천5백원~3만원), 봉제완구(1천원~1만2천원)등이며 종류, 가격, 작품수준이 아주 다양하다. 서울시립부녀보호소와 정아보호소등에서 나오는 목각등도 위탁판매하는데 나무기러기의 경우 1마리에 3천원~1만5천원이다.

『일반가게들보다 싸게 값을 매기고 있지만 위탁판매를 부탁하는 사람들중엔 내가 하루종일 걸려 작품 1개를 만들었으니 이정도는 받아야한다』고 고집하는분들이 있어서 곤란할때가 많아요.

朴京子관장은 여성들이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팔려고 할땐 욕심부터 내지말고 우선 재미로 시작하면서 솜씨를 높여가야 한다고 일러준다.

【張明秀기자】

우유먹고 자란 어린이 피부疾患에 잘 걸린다

國立醫療院 孫權贊박사 알레르기性질환 조사

85%가 섭취한 食料品과 有關

都市 出身일수록 發病率 높아

우유를먹고 자란 어린이들은 母乳로자란 어린이들보다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國立醫療院 孫權贊박사(소아과장)는 최근 계속늘어나는 소아알레르기성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동병원유아보건실을 찾아온 5백13명의 알레르기성질환 어린이환자들을조사했는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嬰兒에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질환의 85%는 선천적인 체질에 의한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식품에 의한 것이었다.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연령은 6~12살사이에서 가장 많았으며 1살미만과 12살이상에서는 비교적 적은편이었고 都市어린이일수록,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인공영양으로 젖乳받은 기간이길수록 알레르기성질환 발병률이 높았다.

증상별로는 두드러기형태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천식, 피부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등이었다.

이처럼 두드러기가 많이나타난것은 섭취된 영양이나 섭취하고있는 식품이 알레르기성질환을 유발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우유를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은 알레르기성질환을 일으키는 율이 높다.

인공영양이나 우유제품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은 연령별로 0·3~7%에서 나타났는데 美國의 경우는 6·6%이며 우유에대한 알레르기성질환발생빈도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인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에대한 알레르기의 증상은 가벼운 피부소양증으로부터 혈관성쇼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알레르기를 야기하는 식품중에는 우유·달걀·생선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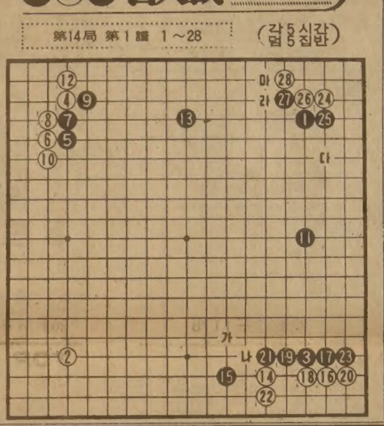
孫權贊박사는 『어린이들의 알레르기성 질환에 관한 부모들의 인식이 의외로 낮아 인식도가 56%밖에 안되었다』고 말하고 자녀가 두드러기나 가벼운 피부소양증을 자주 나타낼때는 섭취한 음식물을 분석, 가려먹이거나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4局 第1譜 1~28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2勝2敗〉

黑〈7段〉徐奉洙〈2勝1敗〉



徐7段의 勢力布石

이바둑에서 얼핏 눈에띄는것은 黑을가진 徐7단이 갑자기 대세력작전을 편 모습이다. 黑1, 3부터가『徐7단의 바둑같지않다』는 평이고 다음黑11의 3連星에서 黑13은 10여년전에 유행했던 포석이다.

연초에 徐7단은 日本의 武宮9단을 이런식으로 격파했기 때문에 자신이생겼단말일까. 좌우간 결과가 주목된다. 黑11때 白12는正手. 여기선黑13자리를 갈라치고 싶지만 그러면 黑은 좌상귀 3三의곳을 鄭5단이 노리게된다. 白14는 당연한걸침. 이에대한 黑의 응수는 다양하지만 黑15는 과거에 유행했던 협공이다. 白16을 유도하고 이하黑23까지 우변에 뚜렷한 대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원래 黑23은 「가」의곳에 뛰어두는 형도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소극적. 게다가 白이 23의곳을 꼬부리면 이쪽의 「담」이 이상해진다. 黑23으로 꽉막아 그리고 또한가지. 白이 「나」로 젖혀 나오는 반격에도 대비하고있다.

우상귀 白24의 3三침입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본 수이다. 보통은 白「다」쪽을 걸치게되는데 鄭4단은 여기서도 우선실리부터 취하려는 한 것이다.

黑25는 당연하다. 이수로 26의곳을 막고 白25로 밀게하는 방향착오.

白28로 젖혔을때 徐7단은 주저한다. 그냥 「라」의곳에 느냐, 아니면 「마」로 젖혀 막느냐. 黑으로선 작전의 기로에 선 독자라면 어느쪽을 택할것인지.

【一人】

女性美術교실 개강 YMCA

YMCA여성미술교실이 3월1일 개강한다. 미혼여성, 주부등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간 데생, 색채학, 유화등을 가르친다. (㉒8291)

學生머리손질 가정법률상담소서 특강

가정법률상담소(전화⑱3427)는 中·高生의 머리 자율화에 어머니와 학생들에게 머리손질의 지혜를 주기위해 26일 하오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강당에서 머리 손질강습과 헤어쇼를 갖는다. 강사에 그레이스·李, 회비 천원.

現代人의 健康百科

입천장 언청이

갓나선 呼吸器 질환조심…12~18개월사이에 手術을

입천장 언청이란 입천장과 목젖이 갈라진 기형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구개열이라 말하고있다. 입천장 언청이는 입술 언청이와 간혹 합병되는 수도있다. 단순한 입천장 언청이는 센 입천장과 여린 입천장이 다같이 갈라진 경우와 여린입천장만 부분적으로 갈라진 경우가 있는가하면 드물게는 언뜻보아 갈라진것 같지는 않으나 자세히 살필때 목젖끝만 갈라져있는 경우도있다.

이같은 단순한 입천장 언청이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입술 언청이의 경우엔 반대로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입술과 입천장이동시에 같이 갈라진 경우는 남녀의차이가 없이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시 입천장은 임신 3개월말경이면 좌우 양쪽이합쳐져서 정상인과 같은형태의 모양이되게마련인데 그 합쳐지는과정이 어느시기에 어떤외부적 장애를받게되면 그장애의 정도에 따라 입천장 언청이가 생겨난다고 알려져있다. 입천장 언청이가 생겨나는 원인은 입술 언청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않다. 물론 유전적인 소인이 원인이되어 생겨나는것도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것으로는 입술언청이에서와같이 임신초기에 잘못복용한 약물이라든가, 영양장애, 호르몬대사장애, 나아가서는 방사선피폭등이 주요인이 될수있다고 하는것이다. 입천장 언청이의 발생빈도는 대략 1천명에 1명꼴로알려져있다.

이같은 아기는 입천장이 없기때문에 자기 힘으로 젖을 빨수가 없다. 따라서 우유병의 젖꼭지 구멍을 정상아동보다 두배정도 크게 뚫어 젖꼭지 끝이 혀밑에 닿게 한다음 우유를 서서히 떨어뜨려 이를받아먹도록 해야한다. 이때 반듯이누워있는 상태로 우유를 먹이면 사레가 잘 걸리게 되므로 아기를 45도정도 비스듬히 안고 먹이는것이 좋다. 입천장 언청이 어린이는 감기와 기관지염, 나아가서 폐렴에 잘걸릴수있다. 방안의 습도조절은 물론 방안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호흡기 질환 예방에 유의해야한다.

또 30%정도에선 심장이나 다른 신체부분에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두는것이 좋다. 입천장 언청이는거의모두에서 중이에 비정상적인 삼출액이 괴어 있게마련이다. 따라서 가능한한 어렸을때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검사를 받은다음 적절한 처치를 받는것도 중요하다. 수술시기는 말을 배우기시작하는 한돌이지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적당하다.

咸基善 【醫博·가톨릭의대성형외과 교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5>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㉜

목이는 무너대고 낯익은 오솔길을 걸었다. 일환이가 따라오는 걸 의식하고 있었지만 돌아다보지 않았다. 가슴이 울렁대고 있었다. 오솔길은 무덤으로 통하고 있었다. 무덤가는 양지바르고 앞이 탁 트여 「오누이의 집」을 근경으로 멀리 겨울 들판과 강과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김치독은 파가면서 즈이 아버지 무덤은 못파갔군』

목이는 무덤 정상에 다리 펴고 앉아서 앙칼지게 중얼댔다.

『글쎄, 우리의 은인한테 원한 품으면 못쓴다니까』

일환이는 목이보다 낮은곳에 역시 다리뻗고 앉아 목이를 쳐다보면서 타일렀다. 진국스러운 얼굴이었다.

『원장아버지는 고아원 그만 두고 뭘하실까?』

『내 생각으론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

일환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왜?』

『여기 묻힌 원장님 아버지가 목사셨단 소리도 못들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목사노릇이 대(代)물림으로 할수있는 건 아닐걸.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때나 하고싶을 때 할수있는것도 아닐테고. 적어도 목사가 되고싶은 심뽀면 우리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치워버리진 않았을거야』

유원장에 관한한 목이는 아직도 서슬이 시퍼랬고, 그게 찬바람에 오그라든 작은 얼굴과 곤두선 솜털과 함께 그녀의 인상을 도리어 귀염성스럽게했다.

『목아, 넌 쪼그만 애가 어쩌면 그렇게 원망이 끈덕지니?』

일환이가 신기한듯 눈부신 듯 실눈을 떴다.

『아까는 어른이라더니 금방 쪼그만 애야?』

『참 아까 네가 뭐랬더라? 내가 널 기른 것 같다고 했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일환이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리고 눈빛이 다시 끈적끈적해졌다.

『칫, 오빠한텐 농담도 못하겠네』

『그야 내가 널 직접 길렀달순 없지만 마음속으론누구보다도 열심히 너를 길러왔다는 걸 이제야 알것같아』

『오빠, 딴 얘기해. 난 그런 어려운 얘기는 못알아들으니까』

『그럴 거야. 넌 이제 막 다 자랐으니까』

일환이는 담배와 성냥을 꺼냈다. 센 바람에 성냥불은 당겨지기가 무섭게 꺼졌다. 일환이는 무덤을 엉금엉금 기어올라 목이 뒤로 돌아 목이를 바람막이로 겨우 담배불을 붙였다. 둘 사이가 한결 가까와졌다. 일환이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빨았고 목이에게도 그담배연기는 싫지않았다. 그러나 때묻은 잠바 깃 사이로 꾀죄죄한 내복과 꺼칠한 속살이 보이자 목이는 조금 비켜앉으면서 눈길을 보냈다.

저만치 폐가가 된 「오누이의 집」의 녹슨 차양, 경첩이 떨어진 덧문, 유리깨진 창틀등이 제멋대로 건들대는 걸 바라보면서 목이는 그곳에서 보낸 사춘기를 생각했다. 치가 떨리게 싫고 무섭던 초경, 밤을 꼬박 밝히며 구구절절 그리움을 호소하던 펜팔, 보모가 갑자기 원장어머니가 되던날의 쓰라린 배신감, 박쥐처럼 반눈을 밝히고 원장부의 침실을 엿보던 앙큼한 적의(敵意), 그런 어둑시근하고도 죄의 예감이 스민 추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金融自律化 점진적추진

金부총리

金俊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금융의자율화는 우리의금융시장 형성軌道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예컨대 정책금융의 축소문제만해도 수출금융, 農資金, 중소기업자금을 어떤 정부라도 당장 내놓는다는식으로 팽개칠수는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대학교수들과 오찬을 겸해 가진 對談에서 경제운용의 자율화저해요인이무엇이라고보느냐는 질문에대해 金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금융시장형태를갖춘것이겨우5~6년의역사에 불과하다는사실을지적, 이같이말했다. 그는 기업이 돈을 버는데 룰을 지키느냐 또는 페어·플레이를 했느냐를 따

鮮京·汎洋專庸船

국내 처음으로 곡물자원의 해외개발수입이 성공했다. 주식회사 鮮京과 汎洋專庸船은 미국의 U·S·타바코社와 공동으로 콜롬비아江유역의 7천에이커(8백56만6천8백평)를 공동경작,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용 옥수수 3만5천톤 全量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0일 鮮京(주) 劉顚源사장과 U·S·타바코 벤틀사장이 미국 현지에서 합의 서명한 이계약에따라 鮮京과 汎洋專庸船은 필요요원을 확보, 미국鮮京支社에 파견하는 한편 올해의 시험재배 기간중에 옥수수 전문가를 파견, 그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콜롬비아江 유역의 10만에이커(1억2천2백24만평)의 농장을 임대, 연간 50만톤의 옥수수를 생산,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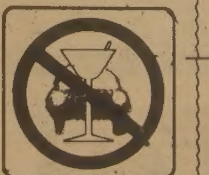
정부는 세계적인 식량무기화추세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등으로 주곡인 쌀은 물론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민간상사의 해외곡물자원의 개발 수입을 지원해왔으나 위험부담이 크고 방대한 자금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현지정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공업용(酒精제조용)및 사료용 옥수수는 수요량의 98%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에도 공업용 40만톤을 포함, 모두 2백40만톤(약5억달러·한화3천5백억원)을 도입했다. 鮮京과 함께 해외곡물자원개발에 나선 汎洋專庸船(대표 韓相淵)은 미국 태평양연안 콜롬비아江河口에 있는 아스토리아港에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하고있다.

農水産部 導入外米 창고實態 일제조사

농수산부는 해빙기를 앞두고 導入外米에 대한 品位검사에 철저를기하기위해 전국 2천4백61개양곡보관창고및 도정공장에대한 導入穀 일제 보관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농수산부에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해빙기를앞두고 그동안 이들창고에 보관된 導入外米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 변질우려여부를 가리는한편 流用등 창고사고를 사전에 막기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한국일보 533-2361

우리는 콤비

「모이자…」MC 李상룡·朴설희

20年 나이차에도 오누이같아

◇「만년어린이」뽀빠이 李상룡과 朴설희는 어린이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웃음과 힘이 솟아난다고한다.

「만년 어린이」로 언제나 어린이 곁에있다. 씩씩한 노래소리, 새봄이 움트는듯한 환호성으로 일요일 아침마다 어린이들을 찾아가는「모이자 노래하자」(KBS 제1TV)의 사회자(MC) 뽀빠이 李相龍(39)과 朴雪姬양(19)은 어린이들의 다정한벗이다.

그들의 나이로 봐서는 20년이나 격차가 있으나 오누이처럼 정겹다. 李相龍은 항상 어린이속에서 어린이로 있으면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늙지도 않는다. 朴설희도 중2(성신여중)부터 뽀빠이와 TV어린이프로의 진행을맡아 지금은 대학생(동덕여대)이 되었으니 5년을 둘이는 나란히 소년소녀로 서온 셈이다.

『저는 굽높은 구두를 못 신어요. 아저씨보다 더 커보일까 봐서요』 그들은 키가 똑같이 1백60㎝. 『둘이 합해서 3백20㎝밖에 안된다』고 마주보며 폭소한다.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다보니 어린이 처럼 키가 작아진 것일까,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키가 자라지 않은 것일까. 때로는『귀염기』까지하다. 어린이 세계엔 늙지않게하는 생명수를 마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키도 크지 말고 더 젊어져라, 더욱 예뻐져라, 그래서 어린이 곁을 떠나지 말라』 뽀빠이가 朴설희를위해 기구하다. 목소리까지 소년을 닮아간다.

『아저씨는 참 아기 같아요』는 튼튼하고 씩씩하고, 언제 어디서나 밝은 웃음을 잃지않는 아저씨의 모습은 믿음직스러워요』 설희도 맞되게 웃는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자라야해요. 예쁘고 착하게. 어른 흉내는 내지 말고…』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들과 지내왔지만 날이 갈수록 어린이들이 영악스러워진다며 따끔한 충고를 잊지않는다.

李相龍은 「모이자 노래하자」를 10년이나 맡아왔다. 처음 만났던 어린이들은 벌써 대학생으로 성장했지만 그는 아직 어린이 답게 그대로이다.

『영원한 아이들』. 이들 「콤비」는 다시 아름다운 꿈과 모험을 안고 어린이 나라로간다. 【金】

애기샘

아름다운 모델

영국의 영사(領事)부인 비니프레드·폰타나에게 3인의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란유명한아라비아의로렌스를비롯, 고고학자인 월리, 그리고 풍자화가 호가드였다. 부인은여류화가였던만큼 그의 얘기에이렇게썼다. 『…세사람 모두 여류화가에게 있어서는 매우 아름다운 모델이다』

바둑소식

曺薰鉉8단·徐奉洙7단 쟁패

林海峯9단 4局서 藤澤꺾어

○…曺薰鉉8단과 徐奉洙7단이 타이틀을 놓고 또 다시 큰승부를 벌이게됐다. 曺8단은 23일 한국기원에서 개최된 제7기 國棋戰 본선 제21국에서 白을 들고 金寅3단을 격파, 6전전승을기록, 國棋戰 도전티키트를 따냈다.

이로써 曺8단은 지난6기때 徐7단에 뺏었던 타이틀의 탈환에 나설수있게 됐는데 두맞수가 금년들어 처음 부닥친다는 점에서 그결과가 주목된다.

○…일본바둑계의 최대타이틀인 제6기 棋聖戰(讀賣新聞주최)은 후지자와·슈꼬(藤澤秀行)과 도전자 林海峰9단사이에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고있어 도전기가 진행될수록 흥미를 더해주고있다.

지난17·18 양일간 歌穌和白浜온천에서 열린 7번승부 제4국은 白을 쥔 林海峰9단이 2백47수만에 7집半을 이겨 토틀스코아 2대2로또 다시 타이틀을 이루게된것.

이번 제4국은 후지자와棋聖이 처음부터 優勢를 펴부어 대세를 리드해갔으나 막판에 이르러 착각을 일으킴으로써 일순에 역전, 좋은 바둑을 놓쳤다.

그런데 이번 제6기棋聖戰은 1국에서는, 도전자 林9단이, 2·3국에서는 후지자와棋聖이 각각승리를 거두어 도전기는 7번기에서 3번승부가 돼버린셈이다. 제5국은 24·25양일간 靜岡縣淸水市에서 열린다.

○…한국여성棋友會가 주최한 제2회 여류아마바둑대회가 지난13·14양일간 90면의 여류기사가 참가한가운데 한국기원에서 열렸다. 棋力에따라 甲·乙·丙組로 나누어열린 이대회에는 국민학생으로부터 60대의 할머니까지 참가했다. 각組 입상자는 다음과같다.

◇甲組=▲우승=김혜순▲2위=서진주 ▲3위=김영 ◇乙組=▲우승=박수진▲2위=이원지 ▲3위=변은희 ◇丙組=▲우승=조영아 ▲2위=박옥이 ▲3위=심갑

뉴시네마運動의 기수 스필버그監督

脫세트·완전주의 映畫 추구

UFO作品으로 連續히트

빛과 소리의 效果에 특출한 솜씨

「클로스…」「레이더스」곧 國內개봉

뉴·시네마운동의 기수로 세계영화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스티븐·스필버그감독의 근작인 「클로스·엔카운터」「레이더스」등2편이 국내에서 동시에 개봉단계에있어 영화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지·루커스, 스탠리·큐브리크, 아먼·펜감독등과 더불어 할리우드영화산업의 기둥이 되고있는 스필버그(34)의 작품세계를 알아본다.

◇스티븐·스필버그의 역작으로 꼽히는 「클로스·엔카운터」㊤와 「레이더즈」㊦의 한장면.

스필버그가「슈거랜드·익스프레스」를 내놓았을때, 뉴요커誌의 평론가 폴린·카엘은 『영화의 완전주의자다. 조지·루커스와 함께 미국영화계를 이끌어갈 새거목이다』라고 평했다. 카엘의 평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그는 지난해 조지·루커스와 손잡고 「레이더스」(잃어버린 성궤의 추적자들)를 발표, 세계영화계를 놀라게 했다. 「레이더스」는 미국에서 2억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리고 계속상영중이고 세계극장가를 휩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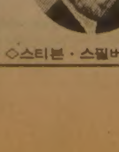
또「레이더스」에 앞서 UFO(미확인비행물체)의 추적을 그린「클로스·엔카운터」(일명·미지와의 조우)가 1억4천만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리고 조지·루커스의「스타워즈」와 함께 극장가를 석권, SF영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다.

특히 스필버그의「클로스·엔카운터」는 지난해 4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의 성공에 앞서 우주여행을 감당하는「인류의 꿈」의 예고편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는 『UFO야말로 미스터리다. 그 의문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우주문제를 제시하는 영화다』라고 「클로스…」를 자평했다.

『영화야 말로 내가 알고있는 모든것』이라고 말하는 스필버그 작품성향의 특징은 새로운것을 시도하는 완전주의에 있다. 「클로스…」에서는 脫세트를 고집, 거대한 돌산을 깎아내 외부와의 차단속에 촬영을 강행했고 「조스」때는 개봉 1주일을 앞두고 편집기사의 꿈에서 보충할 영화화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약관 27세때 감독한 「조스」는 美극장가의 흥행기록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그의 작품세계는 「빛」과 「소리」가 앙상블을 이루는 시청각 효과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스필버그의 이름이 비평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것은 16세때. 「불빛」(18㎜)이 시사회에서 찬사를받으면서부터였다. 11세때부터 SF狂인 아버지의 카메라를 훔쳐내 빛놀음의 섬광을 찍어온 그는 후날 「불빛」이야말로 클로스의 모체였다고술회했다.

남캘리포니아大에서 영화학을 전공한 스필버그는 20세때 24분짜리단편영화「Amblin」이 베니스와 아틀랜타영화제에서 입상, 유니버설영화사에 7년간 전속하는 영광을 안았다. 당시 유니버설사 시드·사인버그 사장은『30억달러짜리 감독이다. 다른감독이 10장면으로 그릴것을 그는 한장면으로 설명한다』고 극찬했다.



◇스티븐·스필버그감독

스필버그를 포함해서「스타워즈」의 조지·루커스,「2001년」의 스탠리·큐브리크,「뒤바뀐 의식」의 켄·러셀,「현대묵시록」의 프랜시스·코폴라등이 뉴·시네마의 기수로 각광을 받고있는것은 그들의 작품이 TV가 흉내낼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재빨리 표현하기때문. 도식적인 멜러, 액션영화에 식상한 관객들을 무한한 꿈의 세계로 몰입시키는 작품성향에 있다는 것. 정통파영화학도인 이들이 영화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성공의 비결이 있다는 견해이다.

【李亨基기자】

LISBON AUTO COLLISION
● 토잉써비스
● 완전한、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된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이락. 김한효
☎ :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어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한 구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Hi－Fi House (고급 전축 스테레오전문)
4544 Dufferin #19(더프린×핀치) ☎633－2332

Stereo King ☎:766－4770 김봉균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카펫·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67－5605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r. 오 선물센타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Shopping Mall, Miss. ☎ : 275－2187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의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 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스포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건축·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전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6894. 윤 종 대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BLOOR ST. W. TOR. ONT. M6G 1L4
☎ : 533－9387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 : 533－2361

續 朝鮮時代 逸名繪畵展

작년에 낙관이없는 古畵들을 전시했던 東山房화랑이 3월4일까지 「續朝鮮時代逸名繪畵展」을 갖는다。

逸名繪畵展은 민화와는 달리 완전한 회화로서의 격식과 품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낙관이없는 그림으로、어떤것은 특정대가들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일명회화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은 작품이라도 古畵시장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못했는데 이것은 작품의 내용보다 작가의 이름을 중시하는 미술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그러다가 지난해 첫 일명회화전이 열리자 미술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총 1백39점으로 款落 또는 圖印이 없거나 분명치 않은것、이런것을 갖추고있어도 작가가 알려지지않은것들이며 병풍과 軸등 큰 작품들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美術

流星의 賦 <31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⑮

수길의 대명침공(大明侵攻)이 한갓 공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은 이미 말한 그대로다。

『제(帝)의 의향을 들어 관백직(關白職)을 히데쓰구(秀次)에게 물려주고 나는 신라(新羅)、백제(百濟)、고려(高麗) 등의 나라로 건너가 이를 정복하고、나아가 중국을 정복해선 구공(舊功)의 장수들에게 두터운 은상(恩賞)을 주는 동시、이국(異國)의 장점을 견문하여 우리 정치의 참고로 하고자 한다』

고 했는데 이말이 있은 직후、즉 1591년 선조24년 관백직을 히데쓰구에게 물려주고 전쟁준비에 전념하게된 것이다。

그리고 속속 배하(配下)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명령이 얼마나 치밀한 것이었는가는 다음의 예로서도 알 수가 있다。

동원(動員)에 있어서의 지침(指針)。

①부대의 행군(行軍)에 있어선 하루의 행정(行程)을 6리(약24킬로미터)로 한다。단 도중 숙소의 원근(遠近)에 따라 6리전후의 증감(增減)은 봉행(奉行=지방관)의 재량에 맡긴다。숙사는 봉행의 지시에 따라 전후를 다투지 말고 순서있게 정한다。

②숙박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단 연료와 마량(馬糧)의 대금은 숙주(宿主)와 의논해서 결정한다。

③각지의 분견대원의 숙박비는 지불해야 한다。철포대(鐵砲隊)의 숙박비는 그 주인이 지불한다。

④강제적인 매입(買入)、강제징용、폭행등 비리적행위(非理的行爲)는 금한다。

⑤각숙(各宿)에 있어서 부담한 행위자가 있었을때는 이를 잘 기록해두고、특히 숙주(宿主)의 비행이 있었을 경우는 결코 구론(口論)하지 말고 보고할것。

⑥어느 때이건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땐 은밀히 보고할것。상금을 보상이 있을것이다。

⑦1리마다에 비각(飛脚=連絡者)을 두사람씩 두어 나고야와 대판사이의 연락이 신속하도록 조처하라。

이상과 같은 지침에 따라 1592년3월1일부터 군대의 출동이 시작되었다。

이어 관백 히데쓰구의 이름으로 1592년 정월 이른바 반포조례(頒布條例)라는 것을 내렸다。

①재진중(在陣中)의 도망자와 관계자는 참(斬)한다。고발한자는 포상한다。

②모든 연락인원은 주인의 증서가 없으면 도망자로 간주된다。

③인부들에 대한 급식은 규정대로 한다。

④원거리에서 따라온 인부는 군역(軍役)을 면하고 오는 10월에 교대한다。

이어 5일엔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①경도에 재류중인 제후들은 모두 귀국 하여 출동준비를 하라。

②숙역과 군대 집합지의 백성들을 편안 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며 단 1촌이라도 약탈하는 자가 있으면 참(斬)한다。(이것이 이른바「一文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율(軍律)을 엄하게하곤 본격적인 동원이 실시되었다。

역마(驛馬)의 배치、도선(渡船)의 배치、연락방법、병량(兵糧)의 수수방법(授受方法)등、오늘날의 안목으로 보아 서도 치밀 주도 하기짝이없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함.
☎ : 535-2798 233-9454
781-9581(저녁)

도너츠 샵 급매(토론토지역에서 25마일 떨어진 지역)
주매상 : $3,000, 아스킹 : $85,000
☎ : 783-5454

경험있는 주말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 : 923-4354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식자기술 배우실분 구합니다.
☎ : 533-2364(미스. 박)

입주하셔서 두어린아이(2년, 1년) 보아주실분 구함. 직장부부.
☎266-0801, 751-3189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Full Time)
☎531-2689

구 직

가게등 각종사업체 운영해드림. 수퍼마켓, 무역회사 부동산업 소유 운영했음.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신원확실, 성실, 입주가능 ☎449-1913(오전11~2시)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George town
○작년도 매상 $270,000
○로타리오 년 $8,000(순이익)
○공중전화 년 $600
좋은 리스, 렌트 600불
☎ 1 877 6813 Mr. 김 883-4550 김영참

드라이 크리닝
①년매상 : $160,000(3베드룸 아파트 포함)
②년매상 : $127,000(리스가 오래됨)
③년매상 : $160,000(오렌지·빌 지역)
아스킹 : $75,000
☎ : 275-5555(데이브·랄)
Expert Business, Realtor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하드웨어 스토어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이익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위치 : Queen St. E.
아스킹 : $129,000 + 스탁
9.5% First Mortgage, 1994
☎ : 461-0225(Peter Tong)
Atwood Hou Real Estate LTD.

세탁물에다는 표를팝니다(1~8번)
노란색(Dry & Laundry용)
오후4시~8시반 ☎ : 742-2092(Mr. Kang)

작은 그로서리 스토어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 + 스탁, 비데오 머쉰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그로서리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 : 844-6741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 $40,000
☎ : 1-579-4507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DUPONT +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식 품 점

고 려 식 품 ☎ : 531-2242
680 Bloor St. W. Tor.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1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89-945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실치, 진열장 전상용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오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8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무역진흥공사 : 977-8784
●K A L : 862-8250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항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운전학교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양 장 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영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우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몸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